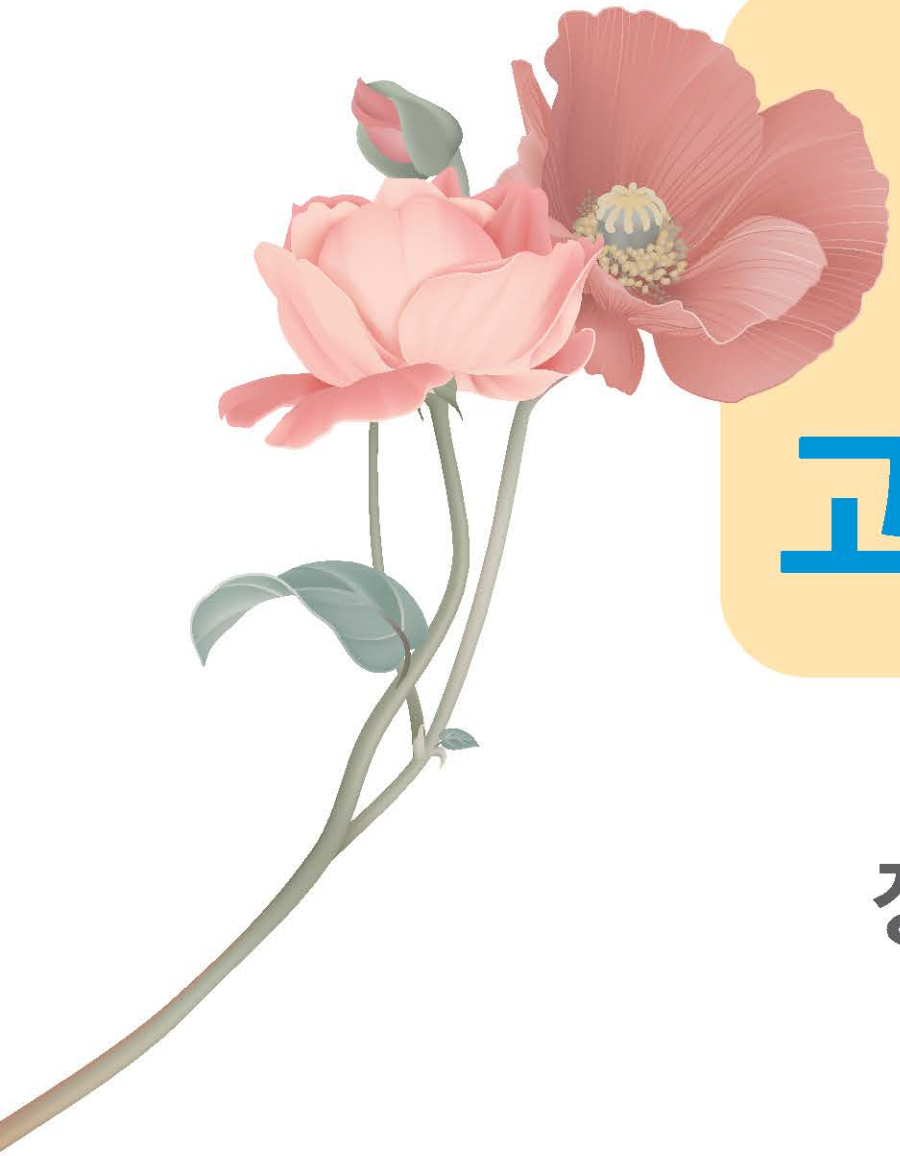
출제 포인트로 이해하는 고전시가



100발 100중 실전서

고등

고전시가

정답 및 해설

01 ① 구지가 _ 구간 외 / 공무도하가 _ 백수 광부의 아내

가 구지가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주술요, 집단 무가, 노동요
화자	집단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이들
성격	주술적, 집단적, 제의적
주제	임금(새로운 생명)의 강림 기원
특징	• 수로왕의 탄생 신화에 삽입된 고대 가요임. • 공적 · 집단적인 소망을 대상에 대한 명령과 위협의 방식으로 표현한 주술적인 노래임. • 사람들이 땅을 두드리며 불렀다는 점에서 노동요로도 볼 수 있음. • '호명 – 명령 – 가정 – 위협'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함. • 특정 대상('거북')을 청자로 설정하여 행동을 요구(명령)함. •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현대어 풀이

신령스러운 존재여, 신령스러운 존재여.
임금을 (우리에게) 내려 주어라.
(임금을) 내려 주지 않으면
(너에게) 해를 끼치겠다.

나 공무도하가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화자	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주제	임을 여읜 슬픔과 한
특징	•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임. • 배경 설화와 함께 한역 시가로 전해짐. •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함. • 대상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남.

현대어 풀이

남편(백수 광부)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남편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남편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17쪽

1 ② 2 ③ 3 ①

1 먼저 대상을 '호명('거북아')'하여 주의를 환기한 다음, 화자의 소망 실현을 '명령('머리를 내밀어라')'하고, 이어서 그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대상이 화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내밀지 않으면')'한 다음, 그렇게 되면 대상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구워서 먹으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머리를 내밀어라'라며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거북'이나 '내밀다' 등의 시어가 반복되지만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④ '거북'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지만 이를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내밀어라'에서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 대한 거부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2 (가)는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불렀다는 점에서, 개인의 염원이 아니라 집단의 염원을 담은 주술적인 노래이다.

오답 해설 ①, ④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불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흙을 파는 것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람들은 '거북'이라는 신령스러운(주술적인) 존재에게 '머리(왕)'를 내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배경지식 >> 「구지가」의 배경 설화

후한의 세조인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액을 떨기 위해 목욕하고 술을 마시던 계욕일에 북쪽 구지봉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2~3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 소리는 있는 것 같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소리만 들렸다. 구간 등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자, "내가 있는 데가 어디냐?" 하였다. "구지입니다." 하자, "하늘이 내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시므로 여기에 왔으니, 너희는 이 봉우리의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를 불러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 날뛰는 것이리라." 하였다. 구간 등이 그 말대로 즐거이 노래하며 춤추다가 얼마 후 우러러보니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을 싼 것이 있었다. 합을 열어 보니 알 여섯 개가 있는데 태양처럼 황금빛으로 빛났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뻐하며 백 번 절하고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갔다. 상 위에 모셔 두고 흩어졌다가 12일쯤 지나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 보니 알 여섯 개가 모두 남자로 변하였는데, 성스러운 용모를 가졌다. 이어 의자에 앉히고 공손히 하례하였다.

3 (나)는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임의 죽음 즉, 대상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대상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거나 예찬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대상의 행동에 대한 만류와 한탄이 드러나지만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④ 대상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으나 대상이 그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⑤ 대상이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대상과 이별하고 그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재회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18~019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⑤
06 ④

다 황조가 _ 유리왕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꾀꼬리
주제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특징	• 화자의 처지와 자연물의 모습을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01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죽은 상황이고, (다)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 혼자 있는 외로운 상황이므로 (나)와 (다)는 사랑하는 임이 부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는 '거북'에게 임금 또는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머리'를 내밀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임이 부재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다) 모두 우리말로 지어져 입으로 전해진 것을 한자로 번역한 시가이다. ③ (가)의 '거북아', (나)의 '임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이제 임을 어이할꼬'에서는 화자의 체념적 정서가, (다)의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에서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가 의문형 어미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⑤ (가)의 자연물인 '거북'은 화자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주술적 대상이다. 한편 (다)의 자연물인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놀고 있다는 점에서 임과 헤어져 외롭게 지내고 있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며,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2 (가)는 '내밀지 않으면'에서 가정적 상황의 설정이 드러나나, (나)에는 가정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거북이 머리를 내밀 것을 원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이 물을 건너지 말 것을 원하고 있다. ② (가)는 '거북아 거북아'와 같이 '거북'이라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는 '임아'와 같이 '임'이라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거북아 거북아'에서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제 임을 어이할꼬'에서 임이 물에 빠져 죽은 상황에 대한 체념과 탄식이 드러난다.

03 (가)는 머리를 내밀라는 요청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기〉의 '노래'는 수로 부인을 내놓으라는 요청의 근거를 '남의 아내를 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와 같이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와 〈보기〉의 '노래' 모두 거북에게 명령하며 머리 또는 수로 부인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술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보기〉의 '노래'에 등장하는 거북은 모두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다. ④ (가)는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이고, 〈보기〉의 '노래'는 납치된 수로 부인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며 부른 노래이다.

04 (가)의 화자는 '내밀지 않으면 / 구워서 먹으리'와 같이 청자인 거북을 위협 또는 협박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바를 이루려 하고 있다. 상대를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하는 '회유'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머리를 내밀어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머리'는 임금, 우두머리, 생명의 근원 등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민중들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가)를 집단적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측된다. ⑤ '내밀어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나)의 4구에서 임이 물에 빠져 죽은 상황에 대해 화자가 보이고 있는 체념적 태도는 '물'이 삶과 죽음 또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넜다는 점에서 임이 화자의 뜻을 거슬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화자에 대한 중만한 사랑'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②, ③ 임은 기어이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 것이므로, 이때의 '물'은 '삶의 원천'이나 '창조'와는 관련짓기 어렵다. ④ 임이 물을 경계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은 '물'이 삶과 죽음 또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정화를 통한 재생과는 관련이 없다.

06 (나)의 '물'은 작품 내적 상황에서는 '임'이 빠져 죽음으로써 화자와 임을 헤어지게 만든 요인이 되므로, 죽음 또는 생과 사의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물에 빠져 죽은 남자의 아내도 남자를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였다. 이는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라도 그와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물'은 만남 또는 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은 물에 빠져 죽은 남자 즉, '백수 광부'이다. ② 화자는 백수 광부의 아내이다. ③ 〈보기〉의 '그 아내는 공후라는 악기를 타며 「공무도하」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등으로 볼 때, 「공후인」이라는 별칭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악기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노래가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고대 가요는 산문과 운문이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았던 당시 문학의 성격을 보여 준다.

배경지식 >> **「공무도하가」의 배경 설화**

곽리자고가 새벽 일찍 일어나 배를 젓고 있는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白首狂夫)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든 채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소리 높여 부르며 막으려 했으나 그는 아내가 다다르기 전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백수 광부의 아내는 공후를 타며 「공무도하(公無渡河)」라는 노래를 지으니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노래를 마치고 아내는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곽리자고가 돌아와 아내인 여옥에게 그 소리와 이야기를 들려주자 여옥은 슬퍼하면서 공후를 타며 그 소리를 따라 하니 듣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여옥이 그 소리를 이웃의 여용(麗容)이라는 여인에게 전하니 이름을 「공후인(箜篌引)」이라 하였다.

01 ② 정읍사 _ 어느 행상인의 아내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망부가
화자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성격	기원적, 서정적
주제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특징	•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로, 후렴구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특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현대어 풀이

〈기〉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멀리 비춰 주소서.
〈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결〉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가는 그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21쪽

1 ② 2 ④ 3 ⑤

1 화자는 '돌'이라는 초월적 존재에게 말을 걸며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는 '돌'에게 기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예찬하고 있지는 않으며,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을 뿐 그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④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후렴구인 '어긔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는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2 화자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③ 남편이 '즌 ᄃᆡ'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다. ⑤ 화자는 '돌'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다.

3 이 글의 화자는 ㉠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혼자 지내는 처지로 밤중에 ㉡이 화자의 벗이 된다고 했으므로, ㉡은 화자의 고독감을 위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정읍사」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

우리 민족에게 '달'은 전통적으로 소망과 기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작품에서도 '달'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 특히 어둡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켜 주는 존재로 그려져 있으며, 화자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남편의 길을 환히 비춰 준다는 점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 주는 의미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22~02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⑤
06 ⑤

가 먼 후일 _ 김소월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요적, 서정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01 (가)의 화자는 떠난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임(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의 안전을 기원하며 간절히 임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자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임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상과 현실이 조화롭게 구현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와 (나) 모두 임과 함께하는 삶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자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은 행상을 떠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⑤ '달'은 초월적 존재이자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지, 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3 ㉢는 길이 어두워져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 희생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는 남편이 집에 오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멀리까지 비추어 달라는 뜻으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② ㉡에서 시장에 있는지를 묻는 것을 통해 남편이 행상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는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같은 부정적 상황들을 의미한다. ④ ㉣에서 어느 곳에나 놓으라는 것은 위험에 처하느니 다 놓고 오라는 뜻으로, 남편에게 자기 자신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아내의 당부가 담겨 있다.

배경지식 ›› 「정읍사」의 배경 설화

정읍은 전주(全州)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노래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나 송인 _ 정지상

핵심 정리	
갈래	한시(절언 절구)
성격	애상적, 서정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을 보내는 정한 / 이별의 슬픔
특징	• 서경(강변의 자연)과 서정(이별의 슬픔)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함. •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화자의 비애를 강조함. • 과장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04 (나)는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그만큼 이별의 슬픔이 깊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과장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통해 '돌'을 의인화하여 남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남편을, (나)에서는 이별하는 임을 부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 임에 대한 염려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에는 '풀빛', '푸른 물결' 등의 색채가 나타나 있으나 색상이 대비되고 있지는 않으며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설의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 (나)는 '대동강 물은 그 언제나 다할런가'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대동강 물이 결코 다하지(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05 ㄴ. 늦은 밤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남편으로, (가)에서는 아내인 화자가 남편이 처했을 문제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 1〉은 '여긔를 비취오시라'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 상황의 당사자인 남편이 화자가 되어 자신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ㄷ. 〈보기 1〉에서는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등과 같은 반복적 표현인 후렴구가 사라져 음악성이 약화되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ㅁ. (가)와 〈보기 1〉 모두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돌'에게 소망을 기원하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ㄱ. (가)는 화자가 돌아오지 않는 임을 염려하고 있을 뿐 그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 1〉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을 뿐 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ㄹ. '내 가논 딕'의 경우, (가)에서는 맥락상 '화자(아내)'뿐 아니라 '남편', '부부'도 주체가 될 수 있어 '남편의 귀갓길', '부부의 인생길'로도 해석이 가능했으나, 〈보기 1〉에서는 화자(남편)가 문제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화자가 가는 길'로 의미가 한정되었다. 따라서 해석의 폭이 확장되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6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실에 대한 무상감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푸른 물결'은 기구의 '풀빛'과 같은 색채 이미지이므로 시각적으로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②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의 푸른 물결에 더해져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이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③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는 전구의 '언제나 다할런가'와 의미상 호응하여 강물이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④ '이별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푸른 물결'에 더해짐으로써 깊은 강물의 흐름과 어우러진다.

01 ③ 제망매가 _ 월명사 / 찬기파랑가 _ 충담사

가 제망매가

핵심 정리	
갈래	향가(10구체)
화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사람
성격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극복 의지
특징	• 빼어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서정성을 높임. •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 10구체 향가의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이 두드러짐.

현대어 풀이

삶과 죽음의 길이 / 여기(이 세상)에 있음에 두려워하여
(누이는) '나는 간다.'라는 말도 / 하지 못하고 어찌 가는가?
(누이의 죽음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나뭇잎들이) 한 가지에 나고서도
(떨어질 때는 서로) 가는 곳을 모르는 것과 같구나.
아아, 그러나 미타찰에서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도를 닦으며 (누이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노라.

나 찬기파랑가

핵심 정리	
갈래	향가(10구체)
화자	기파랑을 예찬(추모)하는 사람
성격	추모적, 예찬적, 애상적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
특징	• 대상에 대한 예찬과 추모의 정서를 드러냄. • 자연물을 통해 대상의 인품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함.

현대어 풀이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울면서 바라보니 / 이슬을 밝히는 밝은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 모래를 가르는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 있구나.
일오라는 냇가 자갈 벌에서
(훌륭한 성품을) 지니신 기파랑의 / 마음의 자취를 따르려 한다.
아아, 잣나무 가지처럼 고결한 기개를 지녀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실 화랑이여.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25쪽

1 ② 2 ② 3 ⑤

1 (가)의 5~8구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죽음으로 인한 누이의 부재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화자가 자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슬픔과 안타까움, 탄식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기파랑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

다. ③ (가)의 5~8구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에 비유하면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로 나타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7~8구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따르겠다는, 즉 본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을 못 했다는 것은 사별이라는 상황에 누이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음을, 즉 누이의 죽음이 불가항력적이고 예기치 못한 것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낄 뿐, 누이를 무심하게 여기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2구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따라서 '머뭇거리고'는 생사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5구의 '이른 바람'은 누이로 비유되는 '잎'을 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예기치 못한 누이의 이른 죽음과 그로 인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6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에 비유하면서 '떨어질'이 지닌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6~7구에서는 '한 가지에 나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과,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각자 죽는 인간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둘을 연결하고 있다.

3 화자는 기파랑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파랑의 고매하고 고결한 성품을 예찬하며 그러한 기파랑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이다. ②, ③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달, 잣나무 가지)에 비유하여 예찬하고 있으며, 7~8구에서는 그러한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④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눈'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부각하여 표현하고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26~027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⑤ 05 ⑤
06 ①

다 이 몸이 주거 가셔 _ 성삼문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의지적, 상징적, 비판적
제재	낙락장송
주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특징	• 가정(假定)을 활용한 자문자답의 형식과 상징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 중절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통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태도를 부각함.

01 (나)는 고매하고 고결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달'과 '잣나무 가지'를 통해 기파랑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으며, 누이에 대한 간절함이 아닌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 대화 형식이나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풍경과 화자의 정서(대상에 대한 예찬)를 연관 지어 표현하고 있다. ⑤ (다)에서 화자는 성찰적이 아니라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2 (나)와 (다) 모두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눈'은 시련, 유혹, 불의 등을 의미하며, (다)의 '백설' 또한 불의, 부정한 세력 등을 의미한다. ③ (나)는 '달'과 '잣나무 가지'를 활용하여, (다)는 '낙락장송'을 활용하여 각각 기파랑과 화자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잣나무 가지'는 '낭'이 지닌 기개를, (다)의 '낙락장송'은 화자가 지닌 기개와 절의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그 인물이 지닌 기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의 관계가 성립한다. ⑤ (다)의 '독야청청'에 담긴 태도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절개이며, (나)의 '눈이라도 덮지 못할'에 담긴 태도 역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자세이다.

03 ㉣은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은 기파랑을 예찬하는 부분으로, 화자 자신에 대한 자책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와 누이 사이에 놓인 생사의 갈림길에 해당한다. ② ㉡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③ ㉢의 '모르온저'는 '모르는 것과 같구나'라는 의미로, 화자의 탄식이 담겨 있다. ④ ㉤에서 화자는 모래를 가르는 물가에 있는 수풀을 보며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다.

나 오백 년 도읍지를 _ 길재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회고적, 감상적
제재	고려의 옛 도읍지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특징	•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04 (가)는 향가, (나)는 시조로, 모두 마지막에 감탄사 '아아', '어즈버'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가)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②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는 '1~4구 – 5~8구 – 9~10구'의 3단 구성을, (나)는 '초장 – 중장 – 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할 뿐 이야기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05 ㉤은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이른 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것은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② ㉡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것으로, 슬픔의 종교적 승화에 해당한다. ③ ㉢의 오백 년 도읍지는 고려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자연('산천')은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인걸')은 사라지고 없다는 데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배경지식 ›› 「제망매가」의 배경 설화
이 작품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누이의 재(齋)를 올릴 때 이 향가를 지어 불렀더니 돌연 바람이 일어 누이의 저승길 노자로 바친 지전(紙錢)을 날려 서쪽(서방 정토)으로 사라지게 하였다고 한다.

06 ⓐ는 잎을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A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 하고 있지만, 떨어진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련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② ⓐ는 '잎'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B의 '바람'은 '나무'가 쓰러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는 비애와 무상감을, A의 '도화'는 감회와 흥취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는 죽은 누이를, B의 '나무'는 임이 그리워 병이 든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02 ① 청산별곡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화자	현실에서 고뇌하며 이상향을 찾는 사람
성격	애상적, 현실 도피적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
특징	• 3·3·2조의 율격과 동일한 음보, 특정 음운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현대어 풀이

〈1연〉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서 살겠노라. / 머루랑 다래를 먹고 청산에서 살겠노라.
〈2연〉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내노라.
〈3연〉 가던 새(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밭)를, 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들판에) 가던 새를 본다. / 이끼 묻은 쟁기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4연〉 이럭저럭하여 낮은 견디며 지나가는구나. /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오?
〈5연〉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6연〉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서 살겠노라. / 나문재(해초)나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서 살겠노라.
〈7연〉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 지나가다가 듣노라. /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8연〉 가다 보니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난들 어찌하리까?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29쪽

1 ① 2 ④ 3 ⑤

1 음성 상징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경쾌한 느낌을 조성하는 것은 후렴구에서 나타나는 'ㄹ, ㅇ'의 반복이다.

오답 해설 ② 매 연 끝에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됨으로써 작품 전체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③ 평서, 감탄, 의문 등 다양한 종결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3·3·2조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렴구에서 'ㄹ, ㅇ'과 같은 음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⑤ 5연과 6연의 순서를 서로 바꾸면 작품 전체가 내용상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된다.

2 ⓔ은 화자에게 가해지는 운명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비애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기반성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을 도피처로 해석하든 이상향으로 해석하든 ㉠은 일상적 삶의 터전과는 구별되는 공간이다. ② 울고 있는 ㉡은 비애를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럭저럭하여 낮은 견디며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지낼지 걱정하는 4연의 내용으로 보아 ㉢은 화자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시간이다. ⑤ 화자는 술을 마시면서 '내 엇디 하리잇고'라며 체념적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삶의 고뇌를 달래기 위해 선택한 도구로 볼 수 있다.

3 이 글의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보기〉의 후렴구는 현실 비판적인 앞 내용과 달리 향락적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후렴구는 모두 각 연의 내용과 조응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 비애와 한탄을 느끼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은 고려 가요, 〈보기〉는 민요로, 모두 3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③ 이 글에서는 '얄리얄리 얄랑(라)셩 얄라리 얄라', 〈보기〉에서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라는 후렴구가 각각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④ 이 글은 비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보기〉는 '쪽박의 신세', '밭은 헐려서', '집은 헐려서' 등을 통해 비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30~031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⑤
06 ④

나 오우가 _ 윤선도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예찬적
제재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주제	오우(五友)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의 덕을 기림.
특징	• 자연물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와 대비되는 속성의 자연물을 제시하여 대상을 예찬함. • 의인화를 통해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치환함.

01 각 연의 마지막 행에서 시상이 집약되는 것은 시조 갈래의 특징으로, (나)에만 해당된다. (가)의 각 연 마지막 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후렴구로, 시상의 집약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얄리얄리 얄랑(라)셩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② (나)는 〈제1수〉에서 다섯 벗을 언급한 다음, 이어지는 〈제3수〉와 〈제5수〉에서 각각 바위와 대나무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제1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3음보인 (가)와 달리 시조인 (나)는 4음보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가)는 〈제5장〉의 1행에서, (나)는 〈제3수〉의 초·중장과 〈제5수〉의 초장과 중장 각각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은 화자를 슬픈 운명으로 몰아넣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설움의 감정을, ㉡은 불변이라는 덕목을 지닌 자연물로 화자에게 흠모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해설 ①, ② ㉠과 ㉡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나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볼 수 없다. ④ ㉠은 화자가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⑤ ㉠은 화자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 세속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03 (가)의 '새'는 화자의 비애감을 부각하기 위해 선택된 자연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청산'은 현실에서 고뇌와 비애를 느끼는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므로,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다섯'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④ (나)의 '꽃'은, 변하지 않아 본받아야 할 대상인 '바위'와 달리 변하는 존재이다. ⑤ (나)의 '그'는 대나무로, 곧음과 속이 비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화자가 내면화하고 싶은 모습인 절개, 겸허함과 연결된다.

배경지식 >> 「청산별곡」 속 장소의 의미

이 작품에서 '청산'과 '바다'는 현실에 존재하는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화자가 현실의 고통과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상상 속의 공간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서 고통을 느끼며 이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세속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청산'과 '바다'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향수 _ 정지용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제재	고향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 향토적 시어와 소재를 사용하여 어린 시절 고향의 평화로운 정경을 묘사함. • 감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함. •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운율감을 형성함.

04 (가)의 화자는 이상향 혹은 도피의 공간인 '청산'을 소망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고향이라는 공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의 화자는 운명에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나)의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미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태도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으며, (나)에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05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정서는 연민이 아니라 정겨움과 그리움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살어리(랏다)'를 반복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는 화자가 (술을) 잡은 것을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술)이 화자를 잡은 것으로 전도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는 청각(물음)을 시각화(금빛)하여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는 '짚벼개' 등의 향토적 시어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친근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06 ㉠과 ㉡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는 점, 각 연을 구분해 주면서 작품 전체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은 'ㄹ, ㅇ' 음의 반복을 통해 경쾌함을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의 정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반면 ㉡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ㄹ, ㅇ' 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③ ㉡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⑤ ㉠, ㉡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02 ② 가시리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화자	임과 이별하는 사람
성격	애상적, 서정적, 민요적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 3·3·2조, 3음보의 율격을 지님. • 매 연의 마지막에서 후렴구를 반복함. • 간결하고 함축적인 순우리말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현대어 풀이

〈1연(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2연(승)〉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 버리고 가시렵니까?
〈3연(전)〉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마는
(임이)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렵습니다.
〈4연(결)〉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오니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오십시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33쪽

1 ③ 2 ② 3 ④

1 ㉢은, 서운하면 안 올 것 같은 임의 반응에 대한 염려가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낸 것이다. 즉, 서운한 것은 임의 반응이지 세상의 평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라는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떠나려는 임의 행위에 대한 원망과 임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임을 잡는 것은 가려는 임의 행위를 막는 것으로, 이는 현재의 사랑을 지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화자는 이렇게 임을 잡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바람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임이 가는 것을 화자가 보낸다고 표현함으로써 이별을 수용하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은 화자가 바라는 임의 행위를 '오소셔(오십시오)'라는 명령형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임이 돌아오는 것은 화자와의 재회를 의미하므로, ㉤에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2 ⓐ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후렴구이므로,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배경지식 >> 「가시리」의 변모 과정

이 작품은 『시용향악보』에 '귀호곡(歸乎曲)'이라는 제목과 함께 '속칭 가시리'라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로 볼 때 이 작품은 3단계의 전승 과정을 겪어 문헌에 정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제목 없이 지방 민요로서의 특수성을 갖추고 있을 때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가시리'라는 제목이 붙어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민요의 성격을 갖추게 된 단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궁중 속악으로 개편되어 왕실에 수용되면서 현재 문헌에 남아 있는 모습으로 변모된 상태에 해당한다. '귀호곡'이라는 제목은 세 번째 단계에서 붙여졌을 것이다. 즉, 이 노래는 원래 지방 민요였던 것이 점차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지역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일반 민요의 성격을 띠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뒤에 궁중의 속악으로 채택되면서 작품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노래로 기능이 변화된 것이다.

3 이 글의 화자는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또한 〈보기〉의 화자가 이별을 임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임이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임을 붙잡지 않고 보낸다. 〈보기〉의 화자도 있으라고 잡았으면 가지 않았을 임을 붙잡지 않고 보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과거에 임과 이별했던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③ 이 글은 임을 향한 하소연(1, 2연)과 당부(4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화자의 독백을 통해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를 통해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지만, 〈보기〉에는 그러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34~035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④

나 어이 못 오던가 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제재	오지 않는 임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특징	•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임의 부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 연쇄법, 열거법, 과장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

01 (가)는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원망에 찬 하소연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는 '어이 못 오던가' 등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중장에서 임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열되고 있지만, (가)에서는 열거법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방식은 (가)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02 (가)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을 떠나보내고 있으며, 임이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신을 찾아와 볼 하루가 없느냐며 임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나)의 화자는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화자는 이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지 않으며, 임을 서운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가)에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고, (나)의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에서도 임에 대한 원망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에게서 임을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 임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과거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면서도 간절히 임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이별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거나 차분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린다고 볼 수는 없다.

03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에는 이별 상황에서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이는 임이 떠난다면 자신은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하소연이 고조된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3)∨가시리(3)∨잇고(2)'와 같이 3·3·2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② '위 증즐가 대평셩대'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구로, 작품의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러한 심리로 인해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이별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⑤ '설온 님 보내옵나니'는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에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생기는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나 서경별곡 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함. • 후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부여함.

04 부탁과 당부의 어조가 드러나는 것은 D이다. C에서는 임을 잡고 싶지만 붙잡으면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A를 통해 임이 화자를 떠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임이 떠나면 살 수가 없다며 A에서보다 더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와 B에서는 '브리고 가시리잇고'가 반복되며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애원을 드러내고 있다. ⑤ C에 제시된 속마음은 임을 붙잡고 싶다는 것이지만, 임이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려워 화자는 D에서 임을 보내며 임이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05 화자는 사랑하는 '서울'과 자신의 생업인 '길쌈베'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은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임을 잡았을 때 임이 보일 반응을 가정한 것이다. ② ㉡은 임이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과 기원이 담겨 있다.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여러 번 겪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⑤ ㉤은 믿음이 끊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02 ③ 동동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화자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
성격	연가(戀歌)적, 민요적, 서정적, 비유적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애련의 마음
특징	• 열두 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각 달의 특성이나 세시 풍속에 맞춰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노래함. • 매 연 마지막 행에서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며 통일성과 형태적 안정감을 얻음. • 〈서사〉는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추정됨.

현대어 풀이

〈서사〉 덕은 뒤에(다음 잔에, 신령님께) 바치옵고
복은 앞에(앞 잔에, 임금께) 바치옵고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 드리러 오십시오.
〈정월 노래〉 정월 냇물은 / 아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에 태어나서 /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2월 노래〉 2월 보름(연등제)에 / 아아, 높이 켜 놓은
연등 등불 같구나. /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3월 노래〉 3월 지나며 핀 /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 지니고 태어나셨도다.
〈4월 노래〉 4월을 잊지 않고 / 아아, 오는구나, 꾀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신가?
〈5월 노래〉 5월 5일(단오)에 /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천년을 사실 / 약이기에 바치옵니다.
〈6월 노래〉 6월 보름(유두일)에 / 아아,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 잠시나마 따르옵니다.
〈7월 노래〉 7월 보름(백중)에 / 아아,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두고
임과 함께 살고자 / 소원을 비옵니다.
〈8월 노래〉 8월 보름(한가위)은 /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 오늘이 (진정한) 한가윗날입니다.
〈9월 노래〉 9월 9일(중양절)에 / 아아,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10월 노래〉 10월에 / 아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 (이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11월 노래〉 11월 봉당 자리에 / 아아, 한삼을 덮고 누워
슬프도다. / 고운 임을 여의고 살아가는구나.
〈12월 노래〉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아, 차례 올리는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 손님이 가져다가 물니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37쪽

1 ① 2 ⑤ 3 ③

1 〈정월 노래〉의 '나릿물'은 봄을 맞이하여 녹으려 하는 것으로, 세상에 태어나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얼어붙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맞다. 한편 〈11월 노래〉의 '봉당 자리'는 11월이라는 계절을 고려할 때 몹시 추운 공간이다. 그런데 화자는 그곳에서 여름에 입는 속적삼을 덮고 누워 있으므로, '봉당 자리'는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받잡노이다'는 임의 장수를 위해 약을 바치는 것이고, '비옵나이다'는 임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임과 함께하기를 비는 것이므로 모두 임에 대한 정성과 기원을 담은 행동이다. ③ '좇니노이다'와 '한데 녀고자'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빗'은 벼랑에 버려진 것이고, '바랏'은 꺾여 버려진 것으로, 둘 다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없으샷다'는 임에게 버림받아 함께 지낼 사람이 없는 처지를, '스싀옴 녈셔'는 임과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둘 다 화자의 고독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은 화자를 비유하는 '저(젓가락)'를 임 대신 무는 존재로, 임과의 결합을 원한 화자가 뜻하지 않게 맺어진 상대를 비유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임을 비유한 소재이다. ② ㉡은 임의 장수를 위해 화자가 준비한 것으로, 임에 대한 정성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③ ㉢ 뒤의 '님을 한데 녀고자'를 통해 화자가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화자는 이를 위해 온갖 음식을 마련한 것이므로 ㉢은 임에 대한 사랑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를 비유한 소재이다.

3 〈6월 노래〉~〈7월 노래〉에는 여름의 더위나 임과의 뜨거운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정월: 변화하는(얼음이 녹는) 계절 ↔ 변화 없이 외로운 화자 ② 3~4월: 꽃 피는 계절 – 아름다운 임(예찬) / 새가 돌아오는 계절 ↔ 오지 않는 임(원망) ④ 8월: 흥겹고 풍요로운 계절(한가위) ↔ 임의 부재로 즐거울 수 없는 화자 ⑤ 11월: 추운 계절 – 추위를 느끼는(외로운) 화자

실전 복합문제 본문 038~039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③

나 강이 풀리면 _ 김동환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임을 기다리는 마음
주제	임에 대한 기다림
특징	•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화함. • 계절적인 상황과 화자의 처지가 대조되어 나타남.

01 ㉠은 정월의 시냇물과 자신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며 화자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대립된 욕망과는 관련이 없다. (나)의 화자도 임을 만나고 싶지만 임이 오지 않아 슬퍼하고 있을 뿐, 대립된 욕망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과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 정월의 냇물과, (나)는 강물이 얼었다 풀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할 뿐이지만 (나)의 화자는 강가에 나가 임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나)에는 임이라는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구체적 행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에는 연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의 1연에서는 연쇄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02 (가)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아으 동동다리'는 전 연에서 반복되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보기 2〉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작품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보기 2〉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나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가, 해학적
제재	임을 기다리는 마음
주제	임에 대한 연모(戀慕)의 정
특징	•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해학적 행동으로 표현함. •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남.

다 속미인곡 _ 정철

핵심 정리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성격	중신연주지사, 서정적
제재	임금에 대한 사랑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연군지정)
특징	• 두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킴.

03 (가)의 화자는 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창밖에 비치는 구름을 임으로 착각할 만큼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화자 또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즉,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다) 모두 시련 극복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③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임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다)는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에라.' 등에서 임에 대한 염려를 알 수 있지만, (가)와 (나)에서는 임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 ⑤ (다)는 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지만, (가)와 (나)에서는 화자의 절망감을 찾을 수 없다.

04 ㉣은 임이 온 줄 알고 뛰어나왔는데 알고 보니 창밖에 구름이 비친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반어적인 표현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모습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의 '빗'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다. ② ㉡은 임과 함께 있어야만 한가윗날이라는 뜻으로, 임이 없어 명절의 즐거움이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④ ㉤은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여 꿈에서라도 임을 보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임 없이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확인하며 서글퍼하고 있다.

배경지식 ›› 「창밖이 어른어른커늘」의 해학성

이 작품은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조선 전기의 시조와는 달리, 감정의 표현이 진솔할 뿐만 아니라 그 정서를 해학적인 행동으로 그려 내고 있다. 구름 그림자에 속을 정도로 절박한 그리움을 수다스럽고 과장된 어조로 풀어냄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희화화하여 해학성을 얻고 있다.

02 ④ 정석가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화자	임과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
성격	서정적, 민요적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특징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냄. • 반복과 과장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 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후렴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함.

현대어 풀이

〈2연〉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다섯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덕이 있으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3연〉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 꽃을)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덕이 있으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4연〉 무쇠로 옷을 재단하여
철로 만든 실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해져야만
덕이 있으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6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41쪽

1 ① 2 ③ 3 ②

1 〈2연〉~〈4연〉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열거하며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야만 임과 이별하겠다고 함으로써, 임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미(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계절감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④ 〈6연〉에서 임에 대한 믿음을 '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2 〈2연〉~〈4연〉에서는 '유덕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 반면, 〈6연〉에서는 이러한 후렴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유덕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반어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행을 2행에서, 4행을 5행에서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2연〉~〈4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6연〉에서는 임과 헤어져 지내는 시간을 '즈믄 해(천년)'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2연〉~〈4연〉에서는 '유덕하신 임을 여

의아와지이다'에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반어적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6연〉에서는 '그츠리잇가'에서 설의적 의문을 통해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2연〉~〈4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역설적 방식을 활용하여, 〈6연〉에서는 임에 대한 믿음을 '끈'에 비유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3 [A]와 [B] 모두에서 '바위'는 '구슬'의 변화를 야기하는 부정적 상황, 즉 임과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A]와 [B] 모두에서 '구슬'은 떨어져 깨질 수 있는 것, 즉 변할 수 있는 것을,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 즉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③ [A]의 '그츠리잇가', [B]의 '바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신'과 '붉은 마음'은 모두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므로, 이런 마음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동일한 모티프가 고려 가요인 [A]와 한시인 [B]에 각각 수용되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42~04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②

나 임이 오마 하거늘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제재	임이 온다는 소식
주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하고 조조한 마음
특징	• 반복과 대구, 음성 상징어의 사용 등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살림. • 화자의 행동을 열거하고 과장되게 표현하여 간절한 마음을 부각함.

01 (가)는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과장되게 가정하고 있다. (나)는 '버선을 벗어 ~ 워렁퉁탕 건너가서'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나)에는 '저녁'과 '밤'이라는 구체적 시간과, 화자의 집과 '건넌 산'이라는 구체적 공간이 드러나 있다. ②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반면 (가)에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등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가)와 (나) 모두 대조나 연쇄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02 6연의 '끈'은 변함없는 믿음을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화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어순의 도치가 나타난 부분은 없으며 긴장감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④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시상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03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의 표면적인 의미는 '이별하겠다'이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이별하지 않겠다'이다. 따라서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는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서사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구운 밤에 싹이 나는 것, 옥으로 새긴 연꽃이 피는 것, 무쇠로 만든 옷이 해지는 것, 무쇠로 만든 소가 철로 된 풀을 먹는 것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④ 〈보기〉에서 본사에서는 '생성과 소멸의 시어들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2~3연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생성에 해당하며, 4~5연의 헐게 되고 먹(어서 사라지)는 것은 소멸에 해당하므로 대칭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결사에서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6연에서 임과 화자의 인연을 끊어지지 않는 끈에 빗댄 것은 대상인 임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04 〈보기〉에 따르면 (가)는 연인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의미는 물론, 임금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임에 대한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끈(ⓒ)'이 임금에 대한 믿음, 즉 충의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임(임금)과의 관계가 위기에 부딪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자가 '천년(ⓔ)'을 '외따로(ⓓ)' 사는 것 역시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정석가」의 '임'에 대한 해석**

이 작품에서 서사에 해당하는 1연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을 연인으로 해석하면 이 작품은 연정가로서 '연인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을 임금으로 해석하면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과 임금에 대한 송축'을 주제로 하는 송축가로 볼 수도 있다.

05 '거머희뜩'한 것을 임으로 착각하고 허둥대는 화자의 모습에 독자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 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이 오기를 바라는 절실함에 공감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녁밥'을 지어 먹고 문지방 위에 앉아 임을 기다리다가 '거머희뜩'한 물체를 보고는 '저것이 임이로구나'라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 즉, '저녁밥'을 짓기 전에 이미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③ 화자는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 앉아 있으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④ 화자는 '삼대'에 속은 것을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뿐 '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또 '삼대'를 처음 본 것도 아니다. ⑤ 화자는 '밤'으로 인해 남에게 웃음을 사지 않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밤'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03 ① 십 년을 경영ᄒᆞ여 _ 송순
짚방석 내지 마라 _ 한호

가 십 년을 경영ᄒᆞ여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
성격	전원적, 풍류적
주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
특징	•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 • 의인법, 비유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냄.

현대어 풀이

십 년 동안 준비하여 방 세 칸짜리 초가집을 지으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을 맡아 두고
강산은 들여 놓을 방이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겠노라.

나 짚방석 내지 마라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격	전원적, 풍류적, 한정가
주제	자연 속의 소박한 풍류
특징	•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부정 명령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현대어 풀이

짚으로 만든 방석 내지 말아라. 낙엽에 못 앉겠느냐?
솔불 켜지 말아라. 어제 진 달이 돋아 온단다.
아이야, 소박한 술과 안주라도 없다고 하지 말고 내오려무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47쪽

1 ② 2 ③ 3 ②

1 화자는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④ 화자는 '초려 삼간'이라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도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배경지식 ›› 「십 년을 경영ᄒᆞ여」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예로부터 우리 선인들은 자연을 지배와 개척의 대상이 아니라, 어울려 지내야 할 친화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이 많다. 이 작품에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태도는 '안분지족(安分知足), 안빈낙도(安貧樂道), 강호한정(江湖閑情), 음풍농월(吟風弄月)'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2 ㉠은 화자와 일체를 이루는 자연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하는 소재이다. ㉡은 화자에게 기원의 대상이 되는 광명의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다. 반면 ㉠에게 화자가 말을 건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은 남편의 무사 귀환이라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개체로 볼 수 있지만,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 화자가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역시 화자의 기원의 대상으로, 긍정적 존재이다. ⑤ ㉠은 자연물을 대표하지만 '초려 삼간'과 대비되는 존재는 아니다. 반면 ㉡은 어두운 '즌 ᄃᆡ'와 대비되는 광명을 의미한다.

3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못 앉으랴'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③ '내지 마라, 켜지 마라' 등의 부정 명령을 통해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이라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짚방석, 솔불 ↔ 낙엽, 달'과 같이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것을 지향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48~049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③

다 흥망이 유수하니 _ 원천석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회고적, 애상적
제재	만월대
주제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한탄과 무상감
특징	• 영탄법, 중의법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드러냄.

01 '초려 삼간'은 세 칸짜리 초가집, '박주산채'는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모두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가)의 화자는 '초려 삼간'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나)의 화자가 '박주산채'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청풍'과 (나)의 '낙엽'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자연)이다. ② (가)의 '돌'은 물아일체의 대상이고, (나)의 '달'도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③ (가)의 '강산'은 들일 데가 부족하여 둘러두고 보는 것으로서 친화와 소망의 대상이다. 반면 (나)의 '짚방석'이나 '솔불'은 화자가 거부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⑤ (나)의 '못 앉으랴'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가)의 '보리라'는 반어적 다짐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을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적 표현이다.

02 (가)는 달과 청풍에게 방을 한 칸씩 맡긴다거나 강산을 병풍으로 삼겠다는 독창적인 표현과 의인법을 통해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연과 속세를 대립적 공간으로 설정하거나 속세를 부인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중장에는 '돌', '청풍'이 있는 초가를 바라보는 근경이 제시되어 있고, 종장에는 '강산'을 바라보는 원경이 제시되어 있다. ② '초려 삼간'은 작은 초가집에 만족하는 화자의 안분지족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③ '돌'과 '청풍'에게 방을 한 칸씩 맡긴다고 의인화하여 자연 친

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중장에서는 화자가 '돌', '청풍'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03 (가)와 〈보기〉는 모두 자연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그리워하던 임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는 중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 '돌'과 '청풍'에게 초려 삼간의 한 칸씩을 맡기는 주체는 '나'이다. 반면 〈보기〉에서 말씀도 웃음도 없는 것은 '뫼'이다.

04 (다)에는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는 '짚방석, 솔불 ↔ 낙엽, 달'과 같이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를 노래하고 있으며, (다)는 고려의 멸망을 통해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다. ④ (나)와 (다)는 모두 평시조이므로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⑤ (나)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는 고려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 청초 우거진 골에 _ 임제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애도적, 추모적
제재	황진이의 무덤
주제	대상(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함.
특징	•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함.

05 ㉡은 '박주산채' 즉, 보잘것없는 음식도 개의치 않으므로 거리낌 없이 내어놓으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소박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어제 진 달이 다시 돋아 세상을 밝히므로 솔불을 켜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은 대상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지, 나태한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은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과거 모습(홍안)과 현재 모습(백골)을 대비한 것이다. ⑤ ㉤은 화자가 잔을 잡아 권할 대상(황진이)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각박한 세태나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는 관련이 없다.

06 (가)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이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야'라고 부른 것은 소박한 식사를 의미하는 '박주산채'를 내어 오라고 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인위적인 것인 '짚방석, 솔불'과, 자연적인 것인 '낙엽, 달'을 대조함으로써 자연 친화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짚방석 대신 낙엽에 앉고 솔불을 켜지 않고 달빛을 바라보는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다. ④ (나)는 '홍안'과 '백골'의 색채 대비를 통해 인생무상을 느끼는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다. ⑤ (나)는 생명력이 왕성한 우거진 '청초'와, 생명력이 없는 죽어 있는 인간('백골')이 대비되고 있다.

03 ② 도산십이곡 _ 이황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화자	자연 속에서 학문을 수양하는 사람
성격	교훈적, 회고적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와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특징	•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과 학문 수양의 자세를 노래함. • 대구법, 설의법, 연쇄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 전반부의 언지(言志: 〈제1수〉~〈제6수〉)와 후반부의 언학(言學: 〈제7수〉~〈제12수〉)으로 구성됨.

현대어 풀이

〈제1수〉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한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한가?
하물며 자연을 끔찍이 사랑하는 이 병을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제2수〉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늙어 가네.
이러한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것이네).
〈제4수〉 그윽한 향기의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구나.
흰 구름이 산에 걸려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이러한 중에 저 아름다운 한 분(임금)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제5수〉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떼를 지은 갈매기들은 오락가락하는데
어찌하여 성현이 타는 새하얀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제7수〉 천운대를 돌아서 완락재의 기운이 맑고 깨끗한데
많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삶의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러한 중에 오고 가는 풍류를 말해 무엇 할까?
〈제9수〉 옛 성현도 나를 못 보았고 나도 옛 성현을 못 뵙네.
옛 성현을 못 봬도 (그분들이) 가시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제10수〉 당시에 (학문에 뜻을 두고) 실천하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어디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제11수〉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오래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제12수〉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실천하니 (학문의 길이) 쉽지 않은가?
(그러나) 성인도 못다 행하니 어렵지 않은가?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학문을 수양하느라)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51쪽

1 ② 2 ② 3 ②

1 〈제1수〉와 〈제2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상태를 '병'과 연관 짓고 있다. 이때의 '병'은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병으로, 화자

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병으로 늙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제10수〉에서 '녀던 길'을 버려 두고 다닌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 ③ 〈제1수〉~〈제5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태도이다. ④ 〈제4수〉에서 '피미일인(임금)'을 잊지 못한다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7수〉 이후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이다.

2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은 '청산'과 '유수'의 속성인 불변성 및 영원성을 활용하여 변함없이 학문에 정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제11수〉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제4수〉의 '유란', '백운' 등의 자연물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대상일 뿐이다.

오답 해설 ① 〈제1수〉는 '~ 어떠하료(며)'라는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고, 〈제2수〉는 초장에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 〈제7수〉의 '닐어 므슴할고'와 〈제9수〉의 '아니 녀고 어쩔고'에서 설의법을 통해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학문 수양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제9수〉 전체와 〈제10수〉의 중·종장에서 연쇄법이 사용되었다. ⑤ 〈제10수〉의 '마로리'와 〈제11수〉의 '호리라'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리, -리라'를 활용하여 '딴 데 마음' 두지 않고 '만고상청'하려는 화자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3 〈제5수〉의 '교교백구'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멀리 마음 두는', 곧 속세에 연연하는 존재로, 화자는 이러한 '교교백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제2수〉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허물 없이 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대상이 긍정적 삶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제2수〉의 '연하'와 '풍월'은 향유와 친화의 대상인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한편, 〈제11수〉의 '청산'과 '유수'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모습을 지닌 대상으로서, 화자에게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 ③ 〈제7수〉의 '낙사 무궁'은 '만권생애(많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므로, 학문에 매진하는 태도를 표현한 〈제12수〉의 '늙는 줄을 몰라라'와 연결될 수 있다. ④ 〈제9수〉에서 '녀던 길'로 가는 것은 성현의 길을 따라 학문을 수양한다는 의미이고, 〈제10수〉에서 '녀던 길'로 돌아오는 것은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두 학문에 매진하는 태도를 표현한 〈제11수〉의 '만고상청'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⑤ 〈제11수〉의 '그치지 마라'는 학문 수양에 매진하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많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만권생애'의 모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52~053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③

가 수려기 _ 이용휴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기(記)
성격	교훈적, 설득적
제재	삶의 자세
주제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
특징	•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 유추를 활용하고 있으며,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도움.

나 덴동어미화전가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규방 가사, 화전 가사, 탄식 가사
성격	서사적, 희고적, 훈계적
제재	화전놀이, 덴동어미의 삶
주제	덴동어미의 기구한 인생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특징	•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냄. • 조선 후기 부녀 가사로서 당대의 사회상을 형상화함.

01 (가)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다) 모두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부단한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해당한다. ③ (가)~(다) 모두 관련이 없다.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며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가)와 (나) 역시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다) 모두 현실에서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는 찾을 수 없다.

배경지식 >> 「도산십이곡」의 창작 의도

이 작품은 '언지' 여섯 수와 '언학' 여섯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서, 창작 의도를 밝힌 발문(跋文)이 함께 전해진다. '언지'에는 자연 속에 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언학'에는 선한 본성 회복을 위해 학문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발문에는 이황이 이 작품을 우리말로 지어 제자들이 노래로 부르며 향유하게 하여,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

02 (다)의 〈제1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 것이지, 자연의 본성을 궁구하는 인간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1]에서는 자연 현상의 이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2]에서는 수많은 별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지만 각각 하늘과 땅의 법칙을 따른다는 예를 통해, 따름의 방식이 다를 뿐 자연은 천리를 따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③ (가)의 [4]에서는 이치를 따를 때 자기 마음에 물어보면 천리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⑤ (다)의 〈제11수〉에는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3 덴동어미는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줌으로써, 청춘과부가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덴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덴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중시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준 자로 부쳐 보고 /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준풍 부쳐 두고'로 볼 때, 덴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다.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청춘과부는 덴동어미의 중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꿀 뿐,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04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른 '청산'을, 중장에서는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유수'를 예찬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본받아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하리라'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A]는 청준과부의 독백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④ [B]에 '그치지 아니한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사용되었지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의문형 표현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심리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05 ㉢은 덴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며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에서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④ ㉣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덴동어미는 이를 이상하다고 여기고 제대로 보면 관계찮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은 '시골에 묻혀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뜻으로, (다)의 화자는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03 ③ 강호사시가 _ 맹사성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화자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
성격	강호 한정가,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특징	•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 자연에 대한 예찬과 유교적 충의 사상이 함께 드러나 있음. •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안정감과 통일성을 형성함.

현대어 풀이

〈춘사〉 자연에 봄이 찾아오니 깊은 흥이 절로 일어난다.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노니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하사〉 자연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신의가 있는 강 물결이 보내는 것은 시원한 강바람이구나.
이 몸이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추사〉 자연에 가을이 찾아오니 물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물결 따라 흐르게 던져 두고
이 몸이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동사〉 자연에 겨울이 찾아오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으니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55쪽

1 ② 2 ② 3 ⑤

1 4수 모두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삶+그러한 삶을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구조를 통해 유교적 이념과 자연애를 결합시키는 강호가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속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일관되게 자연애와 임금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④ 생활인인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연군의 마음은 드러나지만 임금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2 〈추사〉의 B('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고기'라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하사〉의 B('초당에 일이 없다')에는 '초당'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가로움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자연 경관에 대한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각 수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드러나 있다. ③ 〈준사〉의 C에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즐기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 〈추사〉의 C에는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준사〉의 D에는 준흥에 젖어 냇가에서 즐기는 초장과 중장의 상황이 '한가로움'으로, 〈하사〉의 D에는 일 없는 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초장과 중장의 상황이 '서늘함'으로 드러나 있다. ⑤ 〈준사〉~〈동사〉의 마지막 구절인 '역군은이샷다'는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E에서는 D('한가해옴, 서늘해옴, 소일해옴, 즙지 아니해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로 '군(임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3 ㉠(바람)과 ㉡(눈)은 각각 여름과 겨울에 화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으로, 강호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적 시련'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계변: 시냇가)은 ㉠(강호: 자연)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② ㉣(군)은 ㉤(이 몸=화자)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으로, ㉤은 이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③ ㉥(초당)은 여름의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소정)은 가을의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므로, ㉥과 ㉦ 모두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현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탁료: 막걸리)과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은 소박한 생활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56~057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⑤

가 용비어천가 _정인지 외

핵심 정리	
갈래	악장
성격	서사적, 송축적, 설득적, 권계적
제재	새 왕조의 창업
주제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왕조의 번영 송축 및 후대에 대한 권계
특징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으로, 총 125장으로 구성됨. • 세종 당시 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01 '강파', '바람'이 자연물이고 '소정', '그물'이 인공물인 것은 맞지만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파'와 '바람'은 화자가 즐기는 자연, '소정'과 '그물'은 그러한 자연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강호 한정의 감흥을 드러내는 유사한 성격의 소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선비(사)로서 자연을 즐기는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신하(대부)로서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와 '대부'의 정체성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튼튼한 근원을 지닌 '나무'와 '물'에 빗대어 조선의 기틀이 튼튼함을 드러내면서 조선의 왕업이 유구할 것임을 송축하고 있다. ② '경천근민'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의미로, 왕이 지켜야 하는 덕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이 지켜야 하는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게 권계한 것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 곧 신하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③ (나)의 각 수는 모두 앞부분에서 표현한 강호 한정의 개인적 삶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이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신하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조선의 새로운 수도인 한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나)의 '강호'는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운 정서를 누리는 개인적 삶의 공간인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배경지식 >> **「강호사시가」에 나타난 정치적 성격**

이 작품은 강호(자연)에서 사계절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용을 춘하추동의 사계절로 나누어 노래한 시조이다.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라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는 자연 친화 사상과 유교적 이념을 결합한 것으로, 자연 질서에 유교적 관념을 대응시킴으로써 당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나)의 화자는 각 계절별로 특징적 자연물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자연물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도, 그를 통한 화자의 심리 부각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 '강호에 (계절)이 드니'라는 구절을 공통적으로 배치하여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 '역군은이샷다'라는 시어를 공통적으로 배치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제2수〉의 '초당에 일이 업다', 〈제3수〉의 '고기마다 살져 있다', 〈제4수〉의 '눈 깊이 한 자가 넘네'에서는 구체적 사물인 '초당', '고기', '눈'을 각각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암시하고 있지만, 〈제1수〉의 '미친 흥이 절로 난다'에서는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지 않고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ㄷ. 〈제1수〉~〈제3수〉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과 이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4수〉의 중장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에는 주변의 자연 풍광과 관련된 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04 〈보기〉에 따르면 (나)는 유교적 이상이 '이미'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이미 현실화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나)에서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자연을 즐기는 화자 개인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이 몸이 ~하옴도'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장과 중장의 내용(자연을 즐기는 화자 개인의 풍류와 흥취)을 압축한 것이므로,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역군은이샷다'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므로, 신하의 입장에 선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된 말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초·중장에서 묘사한 평안한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04 ① 이 몸이 주거 가셔 _성삼문
가마귀 눈비 마자 _ 박팽년

가 이 몸이 주거 가셔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성격	절의가, 의지적
주제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굳은 절개
특징	•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여 시상을 전개함. • 죽은 후라는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삼아 지조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부각함.

현대어 풀이

이 몸이 죽은 후에 무엇이 될까 하니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어서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에도 홀로 푸르리라.

나 가마귀 눈비 마자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성격	절의가, 의지적
주제	변하지 않는 절개
특징	• 상징적 소재인 '가마귀'와 '야광명월'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함. •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현대어 풀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흰 듯하지만 검구나.
한밤중에도 빛나는 밝은 달이 밤이라고 해서 어둡겠는가?
임(임금)을 향한 (나의) 굳은 마음(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겠는가?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59쪽

1 ③ 2 ④ 3 ④

1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가)와 (나)에는 이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흰색과 푸른색, (나)는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를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② (가)는 '낙락장송', (나)는 '야광명월'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절개를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중·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절개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는 초장에서 묻고(자문) 중·종장에서 답하는(자답) 방식을 활용하여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봉래산 제일봉'은 화자를 표상하는 '낙락장송'이 서 있을 곳, (나)의 '눈비'는 검은 '가마귀'를 희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어지러운 현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둘 다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백설이 만건곤'과 (나)의 '밤'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② (가)의 '백설'은 현실에서 득세하는 부정적 세력에 해당한다.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나)의 화자에게 '님'은 긍정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고 (가)의 '백설'은 이와 대립되는 부정적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③ (가)의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모두 절개를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다. ⑤ (가)의 '낙락장송'과 (나)의 '야광명월'은 모두 절개를 지키는 화자 자신을 표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

3 ㉠은 '눈비'를 이용해 흰 척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검은 존재이다. 따라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한편 ㉡은 '밤'이라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태도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흰 척하지만 검은 부정적 대상, ㉡은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긍정적 대상이다. 화자가 ㉡을 동경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② ㉠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소재로,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도 비애감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은 '눈비'라는 외부 상황을 이용해 검은 자신의 모습을 희게 보이도록 하는 존재이므로 외부 상황에 편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밤'이라는 외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존재이다. ⑤ ㉠은 흰 척하지만 검은 자신의 본질을 숨길 수 없는 존재이고, ㉡도 빛이 나는 자신의 본질을 밤이라고 해서 바꾸거나 숨기지 않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60~06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⑤
06 ③

01 (가)의 화자는 홀로 푸른 소나무가 되어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는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 또한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부정적 현실에서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달처럼) 임을 향한 절개를 지키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의 부재'란 이별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가)와 (나)에서는 화자가 대상과 이별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②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지, 현실을 번잡하게 여기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괴로워한다기보다는 부정적 현실에서 이상적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⑤ 과거 회상도,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02 (나)의 초장에는 검은 가마귀가 눈비를 이용해 흰 척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검은 본질을 흰 것으로 위장하는 모습은,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중장에서는 '봉래산 제일봉'에 선 '낙락장송'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기개와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봉래산 제일봉'을 극한적 상황으로, '낙락장송'을 절망적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가)의 종장에서는 불의한 세력이 득세한 상황을 '백설이 만건곤'한 것으로, 이와는 다른 화자의 태도를 '독야청청'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백설이 만건곤'한 것을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나)의 초장에서는 '눈비'를 이용해 흰 척하지만 실제로는 검은 '가마귀', 곧 시류에 영합하는 불의하고 위선적인 세력을 통해 혼란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마귀'를 고통받는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의 중장에서는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야광명월'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혹은 지향하는 대상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야광명월'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권력의 횡포라고 보기는 어렵다.

03 '-리라'라는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와 다짐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의 의지를 부

각하기 위한 것이지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화자 자신을 '낙락장송'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만 '낙락장송'이 의인화된 것은 아니다. ④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⑤ 초장에서 자신이 죽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임에 대한 애틋함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

04 '독야청청하리라'에는 수양 대군과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다짐과 의지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이 몸이 주거 가셔'는 죽음이라는 극한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그만큼 화자가 굳은 결심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 '무어시 될꼬 하니'는 죽은 다음 자신이 되려는 것에 대한 자문(自問)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③ '봉래산 제일봉'은 산꼭대기로,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닌 화자가 되고자 하는 '낙락장송'이 있기에 적합한 곳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백설이 만건곤'하다는 것은 수양 대군의 득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이 몸이 주거 가셔」의 창작 배경

이 작품은 수양 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성삼문이 자신의 충정을 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자는 죽은 뒤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삼은 뒤, '낙락장송'이 되어 '백설'이 가득할 때에도 푸른빛을 발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낙락장송'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선비를 의미하며, '백설'은 수양 대군과 그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가마귀 검다 흐고 _ 이직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풍자적
제재	까마귀, 백로
주제	표리부동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 표명
특징	•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함. • 설의와 풍자를 사용하여 화자의 결백을 드러냄.

05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야광명월'을 화자를 표상하는 자연물로 볼 수는 있지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표현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중장, (나)는 중장과 종장을 설의적인 표현으로 종결하여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것 희고 속 검을손', (나)는 '희는 듯 검노미라'에서 각각 색채어를 활용하여 '백로'와 '가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평시조로,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안정된 리듬감을 보이고 있다. ④ (가)는 '백로'를 구체적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지만, (나)는 화자의 독백으로 볼 수 있다.

06 ㉢은 눈비를 맞아 흰 척하지만 실제로는 검은 존재로, 검다는 본질을 숨길 수 없는 부정적 존재이다. 따라서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와 그를 따르는 무리, 즉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겉은 검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며 작가가 옹호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작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겉은 희지만 속은 검다며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겉으로 고고한 척하'며 자신을 비웃는 고려 유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야광 명월'을 위협하는 부정적 상황이다. 따라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임(단종)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따라서 '세조의 회유를 뿌리치'고 단종에 대한 충의를 지키려는 작가의 굳은 마음으로 볼 수 있다.

04 ② 오백 년 도읍지를 _ 길재 / 청초 우거진 골에 _ 임제

가 오백 년 도읍지를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고려의 멸망을 한탄하며 인생무상을 느끼는 사람
성격	감상적, 회고적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무상
특징	•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현대어 풀이

(고려의) 오백 년 도읍지(송도)를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니
산천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고려의 신하들은 간 곳이 없구나.
아아,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구나.

나 청초 우거진 골에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황진이를 추모하는 사람
성격	애도적, 추모적
주제	대상(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함.
특징	•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함.

현대어 풀이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워 있느냐?
젊어서 고운 얼굴은 어디 가고 흰 뼈만 묻혀 있느냐?
잔을 들어 권할 사람(황진이)이 없으니 그 죽음이 더욱 슬프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63쪽

1 ① 2 ④ 3 ②

1 (가)는 산천(자연)과 인걸(인간)을 대조하여 고려의 멸망을 통해 본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고, (나)는 우거진 청초(자연)와 대비되는 죽은 황진이(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무상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며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 변화에 대한 확신과는 거리가 멀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한탄과 슬픔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으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④ (가)는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이입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슬퍼 하노라'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현재의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으며, (나)의 화자도 대상을 탓하고 있지 않다.

2 〈보기〉의 화자는 고국을 떠나면서 '삼각산'에게 간다며, '한강수'에게 다시 보자며 말을 건네고 있다. 반면 (가)의 화자는 '산천'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감탄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의 화자는 고국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고려의 멸망으로 인해

허무와 슬픔을 느낀 것이지 시적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것은 아니다. ③ (가)와 〈보기〉 모두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의 자연('산천')은 '의구(옛날과 같음.)'하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의 자연('삼각산', '한강수') 또한 과거와 대비되고 있지 않다.

3 중장에서 '홍안 ↔ 백골'이라는 대비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인생무상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반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③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청초'라는 자연물과 그렇지 못한 대상의 대비가 화자의 비애를 자극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초'가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④ 초·중장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청초(푸른색), 홍안(붉은색), 백골(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의 모습과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64~065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③

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_ 왕방연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연군가, 애상적
제재	시냇물
주제	임금(단종)과 이별한 슬픔
특징	• 화자의 슬픔을 '천만리'라는 수량화된 표현을 통해 극대화하여 드러냄.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냇물'에 감정 이입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냄.

01 (가)의 '필마'는 벼슬하지 않은 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박한 필부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으나, 화자가 몰락한 처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잔' 또한 몰락한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산천'과 (나)의 '청초'는 모두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을 의미한다. ② (가)의 '꿈'은 고려 왕조에 대해 느끼는 허무함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제인 인생무상을 느끼게 하는 시어이다. (나)의 '백골' 또한 생전의 모습인 '홍안'과 대비되어 인생무상을 느끼게 한다. ④ (가)의 '태평연월'은 과거 고려의 융성했던 시절이며, (나)의 '홍안'은 과거 황진이의 생전 모습이다. 따라서 두 시어는 모두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인걸'은 사라져 간 곳이 없고 (나)의 '잔 잡아 권할 이'도 죽었으므로, 모두 부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02 (가)의 화자는 의구한 산천과 달리 인걸은 간 데 없는 모습을 통해, 과거 융성했던 고려의 도읍지가 변한 것을 슬퍼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과거의 홍안은 어디 가고 현재는 백골만 남아 있는 대상(황진이)의 모습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뿐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나)의 화자는 황진이(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의 화자는 그러한 소망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상황을 극복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으며,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나 안타까움도 낙천적인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03 (나)는 '백골'로 묻힌 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를 슬퍼 하노라'로 드러내고 있고, (다)는 '고운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울어 밤길 가는구나'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모두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 (다)의 화자는 대상의 부재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지, 궁핍한 처지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이별로 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별의 성격이 예기치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⑤ (나)와 (다) 모두 거리가 먼 설명이다.

04 (나)의 '잔 잡아 권할 이'는 백골로 누워 있는 대상으로, 그가 '없'다고 한 것은 대상의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의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홍안)과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무상을 표현하고 있다. '홍안'과 '백골'은 의미상으로도 대비되고 색채적으로도 대비된다. ③ (다)의 '천만리'는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함과 동시에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도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이 울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안 같'은 '물'이 울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화자 자신을 자연물인 '물'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다)에서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물'이 울면서 '밤길'을 간다고 하였다. 이는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어져 내 일이야 _ 황진이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 감탄사와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도치법 또는 행간 걸침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함.

05 (가), (나) 모두 점층적 표현도, 화자의 정서 변화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모르던가'에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자책과 회한의 정서를, (나)는 '자느냐 누웠느냐', '묻였느냐'에서 대상(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물음의 형식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② (가)는 감탄사 '어져'를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감탄사가 보이지 않는다. ④ (나)는 '청초(푸른색), 홍안(붉은색), 백골(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지만, (가)에는 색채 이미지와 관련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⑤ (나)는 '홍안 ↔ 백골'과 같이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에는 이러한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06 임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현재의 상황이, 가려는 임을 붙잡지 않고 보낸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을 예찬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원망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실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뿐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⑤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책과 후회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

07 '홍안'이 '백골'이 되었다는 것은 젊고 아름다웠던 황진이가 죽어 백골이 되었다는 의미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홍안'과 '백골'은 황진

이의 상태를 대비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황진이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표현한 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청초 우거진 골'은 대상이 '자느냐 누웠느냐'의 상태로 존재하는 곳이므로, 황진이의 무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느냐 누웠느냐'는 황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물음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잔 잡아 권'하는 행동의 주체는 화자이고 그 대상은 황진이이다. 따라서 '잔 잡아 권할 이'가 없다는 것은 황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황진이를 직접 만나서 사모의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표현한 것이다. ⑤ '슬퍼 하노라'는 황진이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배경지식 ›› 「청초 우거진 골에」와 황진이

황진이는 조선 전기의 기녀이고 「청초 우거진 골에」의 작가 임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이 작품은 서북도 병마평사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던 임제가 평소 흠모하던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추모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황진이는 시서와 음률에 뛰어났던 개성의 기녀로, 현전하는 작품은 5~6수에 지나지 않지만, 기발한 발상과 세련된 언어 구사 등으로 후대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04 ③ 견회요 _ 윤선도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화자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임금에 충성하는 신하
성격	연군적, 우국적
주제	유배지에서의 정회와 연군 /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특징	•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대구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현대어 풀이

〈제1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잘못했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
그 밖의 다른 일이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2수〉 나의 일이 잘못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모두가 임금을 위한 탓이로다.
그 누가 아무리 헐뜯어도 임금께서 헤아려 주소서.
〈제3수〉 경원의 진호루 밖에서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금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제4수〉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뜻은 많기도 많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슬피) 울고 울고 가는구나.
〈제5수〉 부모님을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셨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하노라.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67쪽

1 ③ 2 ② 3 ①

1 〈제3수〉는 유배지에서 느끼는 연군의 정을, 울면서 흘러가는 '시내'에 감정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에 빗대어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에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 있다. ② 작가는 상소를 올리고 유배를 당하였는데, 〈제2수〉에서 화자는 상소를 올린 것('내 일')이 잘못된('망령된') 줄을 알면서도 임금을 위해서(임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하였다. ④ 〈제4수〉에는 유배지에서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⑤ 〈제5수〉에는 임금을 섬기는 마음(충)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효)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2 울면서 흘러가는 ㉠에는 임금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고, 울면서 날아가는 ㉡에는 어버이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이 투영되어 있다.

3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에서 작가의 내면 성찰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작가가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우국충정)만 하겠다는 의미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제2수〉의 '임이 헤여 보소서'는 작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호소로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울어 예는 저 시내야'는 시내에 작가의 감정을 투영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4수〉의 '길고 길고'와 '멀고 멀고'는 현재 화자가 있는 유배지와 어버이가 계신 곳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⑤ 〈제5수〉의 '불효인가 여기노라'는 중과 효를 동일시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68~069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③

나 마환우설 _ 홍성민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설(說)
성격	개탄적, 반성적
제재	유배지에서의 경제적 곤궁함
주제	명분과 실리 사이의 갈등
특징	• 대화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함. •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옳음을 깨달으면서도 명분을 버리지는 못함을 표현함.

01 (가)는 '분별할 줄 이시랴', '내라 하여 모를쏜가' 등에서, (나)는 '무슨 해가 되겠는가?' 등에서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와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어버이가 계시는 곳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곳의 아름다움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등에, (나)는 '먹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 등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은 글쓴이가 유배를 당한 후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부분이다. 이는 사대부인 글쓴이가 마치 장사꾼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글쓴이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 계층으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길게 뻗은 산과 멀리 흐르는 물을 통해 화자가 그리운 어버이와 멀리 떨어져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의 '외기러기'는 유배지에서 외롭게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은 중과 효가 합일되는 부분으로, 임금에 대한 중과 어버이에 대한 효가 결국은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그리움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글쓴이가 생계를 위해 말을 사고 그 말을 소와 바꾸고 그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자책하는 내용으로, 글쓴이가 유배지에서의 곤궁한 생활로 인해 느끼는 고뇌를 표현한 부분이다.

배경지식 >> **윤선도가 유배당한 원인이 된 상소문의 일부분**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아뢰나이다. 신의 아버지는 저의 상소를 금하려 한즉 국가를 저버릴까 두렵고, 받아들이려 한즉 그 아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멍하니 앉았고 묵묵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상소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는 신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슬피 목이 메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비로운 임금님께서는 비록 신을 무거운 법에 놓아 주시되 이 때문에 늙은 아버지에게 화(禍)가 미치게 하지 마시면 영원히 천하 후세에 충신 효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03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임 위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3수〉의 '내 뜻' 또한 '임 향한' 것이므로, 〈제2수〉의 '내 일'을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내 일'에 대해 '아무가' 임에게 이르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화자가 있는 곳으로, 〈제4수〉의 길고 긴 '뫼', 멀고 먼 '물'로 인해 화자가 그리워하는 '어버이'가 계시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공간이다. ④ 〈제4수〉의 '어버이 그린 뜻'으로 볼 때 '뜻'의 대상은 '어버이'이다. 〈제5수〉에서 화자는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라고 하여 효의 대상을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임금에 대한 중에 해당한다. 이를 〈제1수〉와 관련지으면 임금을 향해 '내 몸의 해올 일'만을 닦고 닦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4 ⓐ는 임에게 화자에 대해 헐뜯고 모함하는('일러') 대상이다. 즉, 화자를 모함하여 임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다. ⓑ는 말에 대한 신의를 강조하는 글쓴이에게, 말을 팔아 소로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존재이다. 글쓴이는 ⓑ의 충고로 인해 '그제야 퍼뜩 깨달았'다며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는 화자를 모함하는 존재, ⓑ는 화자에게 충고하는 존재이므로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①)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②)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는 화자를 모함하는 존재이므로 화자가 호감을 지닌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는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존재이므로 글쓴이가 그에게 반감을 가진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는 화자에 대해 임금에게 모함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가 아니다. 한편 ⓑ는 말을 저버릴 수 없다는 글쓴이를 우활하다며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05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이입된 시냇물이 밤낮으로 흘러 그칠 줄을 모른다는 의미로,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의 '그 밧긔 여남은 일'은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는 '내 몸의 해올 일'과 관련 없는 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화자의 마음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 표현에 해당한다.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하늘의 뜻임을 밝혀 그 절대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5 ① 동짓달 기나긴 밤을 _ 황진이
이화우 흩뿌릴 제 _ 계랑

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사람
성격	감상적, 낭만적
주제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기다림
특징	• '밤(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함.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냄. •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나타냄.

현대어 풀이

(임이 안 계시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서
봄바람처럼 따스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사랑하는 임이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펼치리라.

나 이화우 흩뿌릴 제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화자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사람
성격	감상적, 애상적
주제	임을 그리는 마음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하강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 거리를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임과 화자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냄.

현대어 풀이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손을) 잡고 헤어진 임이여,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임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천 리 길 (머나먼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71쪽

1 ③ 2 ② 3 ②

1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밤'이라는 시간에 대한 참신한 발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임에 대한 원망은 보이지 않는다. ④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특정 어미를 반복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절망감도 드러나 있지 않다.

2 '어른 님'이 돌아올 수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밤'은 화자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고, ⓑ의 '밤'은 임과 함께할 시간이다. ③ ⓓ에는 ⓒ에 대응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구비구비 펴리라'가 들어가야 한다. ④ ⓒ와 ⓓ에서는 '밤'을 이불 아래 넣었다가 편다고 했으므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 ⑤ 화자는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지속하고 싶어서 동짓달의 긴 밤(ⓐ)을 잘라 넣어 두었다가(ⓒ) 어른 님이 오시는 밤(ⓑ)에 꺼내어 펼친다(ⓓ)고 표현한 것이다.

3 (나)의 '임'은 화자가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지음'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다. '지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기〉의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이화우'는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배경이며, 〈보기〉의 '비'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임이 없이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심정을 '외로운'이라는 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 또한 화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으로 인한 괴로운 심정을 '괴롭게'라는 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추풍'은 봄에 임과 이별한 후 홀로 쓸쓸하게 지내다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처지와 조응하여 쓸쓸함을 심화시킨다. 〈보기〉의 '가을바람' 또한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화자의 처지와 조응하여 쓸쓸함을 부각한다. ⑤ (나)의 '천 리'는 화자와 이별한 임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다. 〈보기〉의 '만 리' 또한 화자와 멀리 있는 고국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추야우중」의 창작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이 작품의 결구는 창작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하던 시절로 볼 경우 '만 리'는 타국에서 느끼는 고국(신라)에 대한 물리적 거리감으로, '만리심'은 고향(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창작 시기를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로 볼 경우 '만 리'는 세상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으로, '만리심'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멀어진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72~073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⑤ 05 ⑤
06 ⑤ 07 ④

01 '춘풍 이불'은 '봄바람처럼 따스한 이불'을 의미한다. 화자가 임을 위해 새로 이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임과의 재회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는 것은 그 밤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된다. ③ '베어' 낸 '밤'을 '서리서리 넣'어 두는 것은 '어른 님 오신 날 밤'에 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임이 오는 날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④ '밤'을 '구비구비 펴'는 것은 임과 함께하는 '밤'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밤'을 '베어 내'고 '넣'어 두고 '펴'는 행동은 재회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태도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은 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며, '베어 내어' 줄이고 싶은 부정적 시간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임이 화자와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실제로 실현된 시간이 아니라, 화자가 가정적으로 상정한 시간이다. ③ ㉢은 화자의 추측이 아니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주체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3 중장의 '서리서리'는 곧게 펴는 것이 아니라 잘 말아 놓는 것이고, 종장의 '구비구비'는 구불구불하게 마는 것이 아니라 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굽고 곧음 즉, 곡직의 대립 관계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초장의 '밤'은 임이 없는 외로운 시간이므로 길게 느껴지고, 종장의 '밤'은 임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이므로 짧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 둘은 (임의) 유무와 (심리적 길이의) 장단 면에서 대립 관계에 있다. ③ 초장의 '동지'는 임이 없어 외롭고 차가운 겨울의 이미지이고, 중장의 '춘

풍'은 임이 오신 밤에 꺼내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이므로 따뜻한 봄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이 둘은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냉온의 대립 관계이다. ⑤ 중장에서 '밤'을 이불 아래 '넣'고 종장에서 '펴'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의 대립 관계로 볼 수 있다.

가 뫼버들 갈히 것거 _ 홍랑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제재	뫼버들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특징	• 조장에서의 행위가 중장과 종장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연쇄적인 인과 구조로 되어 있음. •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다 사미인곡 _ 정철

핵심 정리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성격	중신연주지사, 서정적, 연모적
제재	임금에 대한 사랑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주요 소재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충정)을 표현함. • 여성 화자에 빗대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호소함.

04 (나)는 '이화우', '추풍낙엽'과 같이 하강 이미지를 지닌 소재가 사용되어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가)는 '밤비'에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 있으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평시조로,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섬세하고 차분한 어조를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가 느끼는 애상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05 (나)에서는 봄의 이미지를 가진 '이화우'와 쓸쓸한 이미지를 가진 가을바람에 지는 낙엽('추풍낙엽')을 통해 시간의 변화와 애상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는가', '-는구나'와 같이 의문형 또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③ 점증적 강조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외로운 꿈'과 같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부분이 있으므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 (나)는 '이화우'가 흩날리는 봄부터 '추풍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까지, (다)는 '동풍'이 부는 봄부터 '녹음'이 깔린 여름까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별한 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 (다) 모두 공감각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나), (다) 모두 대상에 감정이 이입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나), (다) 모두 임과 함께했던 과거와 그렇지 못한 현재가 대비되어 있기는 하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④ (다)의 '천 리 만 리 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는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07 (나)의 '이화우'는 가슴 시린 이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소재이고, (다)의 '산'과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아 화자가 임에게 다가서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나)의 '이화우'와 (다)의 '산'과 '구름' 모두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반영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여성인 계랑이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다)는 사대부인 정철이 자신을 여인에 빗대어 임(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③ (나), (다)는 '천 리'라는 시어를 통해 헤어진 임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라고 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자신이 보낸 옷을 받고 임이 반기실지를 궁금해하며 '나를 본 듯 반기실까'라고 하고 있다. (나)와 (다)의 화자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05 ②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_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하거늘 _ 작자 미상

가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임을 기다리는 사람
성격	연정가, 해학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특징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개의 행동을 실감 나게 표현함. •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 • 순우리말과 소박한 일상어를 사용하여 서민적 성격을 드러냄.

현대어 풀이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이 개같이 얄미운 놈이 있을까?

미워하는 임이 오면 꼬리를 홰홰 치면서 뛰어올랐다 내리뛰었다 하면서 반겨 맞이하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남아돈들 너 먹일 줄이 있을까?

나 님이 오마 하거늘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임을 기다리는 사람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하고 조조한 마음
특징	• 대구, 음성 상징어 등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림. • 착각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려 냄. • 화자의 행동을 열거하고 과장되게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부각함.

현대어 풀이

임이 오겠다고 하시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시는가 가시는가 건넛산 바라보니 검은 듯 흰 듯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 임이로구나 하여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엎치락뒤치락 허둥대며 진 곳이나 마른 곳이나 가리지 않고 우당탕퉁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7월 3일날 껍질을 벗긴 주추리 삼대가 얄밉게도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75쪽

1 ⑤ 2 ② 3 ④

1 (가)는 대상(개)의 행동을, (나)는 화자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중장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개)의 부정적 모습을 부각하고 있고, (나)는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등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함과 조급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설의적인 표현은 (가)의 초장 '요 개갓치 알미오랴'와 종장 '너 머길 줄이 이시랴'에서만 사용되었다.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개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개에 빗대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가)는 '홰홰, 버동버동, 캉캉'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개의 행동을, (나)는 '곰븨님븨 님븨곰븨, 쳔방지방 지방천방, 워렁퉁탕'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 표면적으로는 임을 오지 못하게 막는 개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 전가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개'라는 대상이 등장하지만 화자의 사랑이 이입된 대상은 아니다. ③ 임이 오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줄 뿐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개'는 애정의 대상이 아니며, 화자가 절망감을 극복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개'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며,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3 ㄹ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했음을 화자가 자각하는 부분이다. 임이 화자를 속인 것도, 화자가 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임이 오는지 보려 하는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②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있다. ③ 임을 빨리 보겠다는 마음만으로 앞뒤 잴 것 없이 허둥지둥하며 꾸밈없이 행동하고 있다. ⑤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밤이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낮이었다면 남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고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76~077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② 05 ⑤

01 '버선'이나 '신'이 실생활의 소재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생동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 음성 상징어를 나열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허둥거리며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④ 화자의 행동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중장이 길어졌는데, 이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진 곳과 마른 곳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먼저 애정(정엣말)을 표현하려는 모습은 〈보기〉의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대담성'과 연결된다.

배경지식 >> 「님이 오마 하거늘」에 나타난 사설시조의 해학성

이 작품에서 독자는 '거머희뜩'한 것을 임으로 착각하고 허둥대는 화자의 모습에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이 오기를 바라는 절실함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문지방에 앉아 '건넌 산'을 간절한 기다림 속에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에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틋함에 공감하게 되며,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멋쩍어하는 화자의 모습에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하게 된다.

02 (가)에서 화자는 '쉰밥이 그릇그릇' 나도 '너(요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며 임이 오지 않는 책임을 개에게 전이하여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상황의 전이'에 해당한다. 화자가 '쉰밥이 그릇그릇' 나는 것을 '요 개'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 '뮈온 님'과 '고온 님'에게 하는 개의 대조적인 행동이 '고온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상황과 부조화를 이루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나)에서 '님'으로 확신했던 것이 '주추리 삼대'로 밝혀지는 상황은 〈보기〉에서 말한 '상황의 반전'으로,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④ (나)에서 '님'을 만나기 위해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허둥대며 가는 모습을 과장하여 희화화한 것을 통해 웃음을 유발

하고 있다. ⑤ (나)에서 '주추리 삼대'를 '님'으로 착각한 화자의 실수를, '밤이기에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고 재치 있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3 화자는 ㉠('개')의 행동 때문에 '고온 님(㉡)'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온 님'과의 만남이 화자의 소망이므로 '고온 님'을 돌아가게 만드는 ㉠은 화자의 소망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다. ③ ㉢은 임과 관련된 사물이 아니므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은 화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대상이다. ⑤ 화자의 소망은 임을 만나는 것으로, 이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 소망 실현의 시간으로 볼 수 없다.

가 개야 즛지 마라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연정가
제재	개
주제	소망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바라는 마음
특징	• 개를 매개로 하여 소망하는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 • 개에게 명령하는 형식을 통해 화자의 염려를 드러냄.

04 (가)의 초장에서 화자는 '밤 ᄉᆞ람'이 무조건 '도적'으로 간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밤 ᄉᆞ람'이 임을 찾아다니는(자신을 찾아오는) '두목지 호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목지 호걸'은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도적'은 그렇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개에게 '즛지 마라'라고 한 것은 '밤 ᄉᆞ람'이 '도적'이 아니라 화자가 소망하는 '두목지 호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의 짖음은 '두목지 호걸(밤 ᄉᆞ람)'의 발걸음을 되돌려 화자의 소망 실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화자는 이를 염려한 것이다. ③ (가)의 화자가 개에게 '즛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는 '두목지 호걸'이 '님 츄심 단'니기 때문(중장)이고, 그러한 화자의 부탁이 수용된 결과가 개가 '좀 좀'해진 것 즉, 짖음을 멈춘 것(종장)이다. ④ (나)의 화자가 개에 대해 '얄미우랴'라고 말한 이유는 '고운 임'을 돌아가게 하기 때문(중장)이고, 그러한 감정으로 인한 화자의 대응이 개에게 쉰밥조차 주지 않는 것(종장)이다. ⑤ (가)의 '좀 좀 ᄒᆞ더라'는 '호걸'의 '님 츄심'을 방해하는 개의 짖음이 멈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호걸'이 '님 츄심'하기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나)의 '돌아가게 한다'는 화자의 소망, 곧 '고운 임'과 만나는 상황이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05 (가)의 개는 화자의 부탁을 들은 후 짖음을 멈추고 있다. 따라서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개는 미운 임이 오느냐 고운 임이 오느냐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개는 '두목지 호걸'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의 개는 '고운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물로 활용되었다. ② (가)는 종장의 '그 개'에서 '그'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개가 화자와 일정 정도의 물리적 거리가 있음을 표현하였고, (나)는 초장의 '요 개'에서 '요'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개가 화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표현하였다. ③ (가)와 (나)는 각각 '두목지 호걸', '고운 임'과의 만남을 바라는 화자의 기대와 이것을 방해하는 개의 반응(짖음)이 다른 데서 시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④ (가)의 개는 화자의 바람(짖는 것을 멈추는 것)에 부응하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개는 화자의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05 ③ 어이 못 오더냐 _ 작자 미상 / 귀뚜리 저 귀뚜리 _ 작자 미상

가 어이 못 오더냐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임을 기다리는 사람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특징	•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며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강조함. • 연쇄법, 열거법, 점강법, 과장법 등을 사용하여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다채롭게 표현함.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을 강조함. •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임의 부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현대어 풀이

어찌하여 못 오느냐? 무슨 일로 못 오느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넣고, 그 안에 너를 (오랏줄로) 꽁꽁 묶어 넣고, 쌍배목 외걸쇠에 용거북 자물쇠로 꼭꼭 잠갔더냐? 너 어찌하여 그리 아니 오느냐?

한 달이 서른 날인데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

나 귀뚜리 저 귀뚜리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임을 기다리며 외롭게 지내는 여인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주제	가을밤에 임 그리는 외로운 여심
특징	•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함. •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현대어 풀이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어인 귀뚜라미가 달이 지고 밤이 새도록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제 혼자 계속해서 울어서, 사창 (안에서) 살포시 든 잠을 알뜰히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벌레지만 임 없이 홀로 지내는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는 저 귀뚜라미뿐인가 하노라.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79쪽

1 ③ 2 ⑤ 3 ③

1 의문형 문장('오더냐', '잠갔더냐', '없으랴')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애타는 마음과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②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배경을 묘사한 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식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보기〉에서, 사설시조는 화자의 정서 또는 시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화자의 행동이나 생각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틋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게 된다고 하였다. (가)의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엉뚱한 상상을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사설시조는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다고 하였는데, (가)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사설시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가)의 '뒤주, 궤, 자물쇠'와 같은 실생활의 소재들은 이러한 사설시조의 특성을 보여 준다. ③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애상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를 해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부분은 〈보기〉에서 언급한 해학성 즉, 화자의 정서 또는 시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화자의 행동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웃음과 연결시킬 수 있다. ④ '성을 쌓음. → 성 안에 담을 쌓음. → 담 안에 집을 지음. → 집 안에 뒤주를 놓음. → 뒤주 안에 궤를 놓음. →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음. → 쌍배목 외걸쇠와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 잠금.'과 같이 임이 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연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화자의 추측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사설시조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고 한 점과 연결시킬 수 있다.

배경지식 >> 임의 부재

'부재(不在)'는 '그곳에 있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부재'는 '분리' 또는 '이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별이나 죽음은 대상이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분리 또는 부재의 상황에 해당한다. 「어이 못 오더냐」에서 임은 현재 화자와 함께 있지 않으므로 부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3 ㉠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다 겨우 든 잠을 깨우는 '귀뚜리'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그 야속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장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로 볼 때 화자는 그 얄밉고 야속한 '귀뚜리'만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에서 화자는 '귀뚜리'를 자신과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있는 존재로 여기며 '귀뚜리'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내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귀뚜리'를 찬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귀뚜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에는 '귀뚜리'에 대한 원망이 드러날 뿐 '귀뚜리'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는 '귀뚜리'를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려 할 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에 '귀뚜리'를 믿지 못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서는 자신의 슬픔을 알아주는 '귀뚜리'에 대해 인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뿐 슬픔을 억제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에는 '귀뚜리'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드러날 뿐 '귀뚜리'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귀뚜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뿐 외로움을 이겨 내려는 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80~081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③
06 ⑤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적, 감상적
제재	외기러기
주제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특징	• '외기러기'를 청자로 삼아 대화를 하는 형식(문답법)을 취하여 사상을 전개함. • '외기러기'를 의인화하여 임에게 화자의 말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함.

01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는 화자가 기러기에게 바라는 내용(임에게 가기를 바람.)에 해당하고,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앉져'는 현재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성을 쌓음. → 성 안에 담을 쌓음. → 담 안에 집을 지음. → 집 안에 뒤주를 놓음. → 뒤주 안에 궤를 놓음. →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음.'과 같이 시어나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배치되면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집', '뒤주', '궤' 등과 같이 집이나 가구와 관련된 사물들이 시어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는 '못 오더냐'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의 '전ᄒᆞ여 쥬렴'은 외기러기를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02 (나)에서 '외기러기'는 화자와 대화를 나누고 한양성에 들러 임에게 화자의 처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화자는 이렇게 외기러기를 의인화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종장에서 화자는 임에게 자신을 보러 오기 위해 고작 하루라는 짧은 시간도 낼 수 없느냐며 묻고 있다. 이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을 드러낸 것이지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② (가)의 종장에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에게 묻는 형식을 통해서 임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임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을 뿐 임과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 제시된 공간('성, 담, 집, 뒤주, 궤')은 임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하여 설정한 공간이며, (나)의 '한양성'은 임이 거주하는 공간은 맞으나 그 공간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03 (가)는 초장에서 '못 오더냐', 중장에서 '쌓고', '놓고'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는 '귀뚜리', '소리'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가을밤에 임을 그리는 외로운 여인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04 '용거북 자물쇠'는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화자가 상상한 것으로, 임의 신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임이 무쇠로 만든 성에 갇혀 오지 못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② '성', '담', '집', '뒤주', '궤', '외걸새', '자물쇠'는 임이 화자에게 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③ 화자는 임이 궤 안에 결박되어 있어 자신에게 오지 못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⑤ '서른 날'은 화자

가 임을 기다리는 날들로, 그중에 화자를 보러 올 날이 하루도 없느냐는 말을 통해 임이 오지 않은 날들이라고 볼 수 있다.

05 '귀뚜리'라는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임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화자의 독백을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귀뚜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불쌍함 → 원망 → 동병상련'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임을 그리워하다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화자의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귀뚜리', '소리' 등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임을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06 (나)의 '귀뚜리(㉠)'와 〈보기〉의 '자규(㉡)'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둘 다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③ ㉠과 ㉡은 모두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은 슬픈 울음소리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에게 쓸쓸함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보기〉에는 ㉡의 소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① 두터비 파리를 물고 _ 작자 미상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_ 작자 미상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두꺼비의 행태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 두꺼비
성격	풍자적, 우의적, 희화적, 해학적
주제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양반 계층 풍자
특징	• 양반 또는 탐관오리와 같은 특권층을 두꺼비로 표현하여 그들의 허장성세를 우의적으로 풍자함. •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특권층의 허장성세를 희화화하여 표현함. • 시적 대상인 두꺼비의 독백을 직접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임.

현대어 풀이

두꺼비가 파리 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무서운)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아아,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 들 뻔하였구나.

나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상인과 이를 비판하는 행인
성격	풍자적, 해학적
주제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특징	•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을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여 생생하게 상황을 전달함. • 화자가 바뀌면서 사상이 전개됨. • 게의 모습 등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임. • 감각적인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유발함. • 풍자의 기법을 통해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함.

현대어 풀이

사람들이여, 동난지이 사시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것을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겉은 뼈요, 속은 살이고,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가는 작은 다리 여덟 개, 큰 다리 두 개, 진하지 않은 간장에 (씹으면) 아삭아삭한 동난지이 사오.

장수야,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고 하려무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83쪽

1 ④ 2 ② 3 ⑤

1 ㉣은 '두터비'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성찰을 유도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또한 '두터비'는 성찰적 자세를 보이지도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 '거만하게 위세를 뽐내다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보여 주는 존재이므로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하는 행동이므로 거만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화자가 시적 대상인 '두터비'의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두터비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날렵함으로 합리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 행인은 불필요한 한자어를 남용하는 상인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쉬운 우리말 대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현학적 세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행인은 현학적 태도를 지닌 상인을 비판하고 있다. ③ 의인화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상인과 행인 사이에 친화감도 찾을 수 없다. ④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의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⑤ 중장에서 한자어를 사용하여 '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과장이나 반복은 쓰이지 않았다.

3 〈보기〉에서 사설시조는 인간의 세속적인 모습과 갈등을 시의 세계로 끌어옴으로써 문학의 관심 영역을 넓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게젓'이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한자어를 나열하며 허세를 부리는 상인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세속적 모습을 시의 세계로 끌어온 사설시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인의 고달픈 생활은 드러나 있지 않다. 상인의 허세와 이를 비판하는 행인의 모습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② '게'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지 않으며, 관습화된 미의식의 추구는 (나)와 같은 사설시조가 아닌 평시조의 성격이다. ③ (나)의 화자가 여성인지 알 수 없고, 〈보기〉를 통해 여성 화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중세의 고정 관념과 관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쉬운 우리말보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상인을 비판하고 있을 뿐, 양반 계층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경지식 >>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에서 상인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이유

이 작품에서 상인이 일부러 한자어를 사용하여 현학적으로 대상을 포장한 것은 양반들에게도 물건을 팔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상인이 지금은 게젓 장수이지만, 과거에는 양반이었음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상인이 자신이 게젓 장수임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일부러 어렵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작가가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84~085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③

나 매화 _ 권섭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예찬적, 관조적
제재	매화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특징	•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함. • 매화를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함.

01 (가)의 중장부터 화자가 '두터비'로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중장은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자신이 느낀 심리를 '가슴이 금즉하여'로, 그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는 것으로 직접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백송골'이 우위에 놓인 우열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② 중장에 '백송골'과 '두터비'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두터비'가 '백송골'을 두려워하는 모습만 제시되어 있다. ④, ⑤ 종장은 두터비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변명하는 내용이다. 이를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는 의지나 반성적 성찰로 보기는 어렵다.

02 (가)의 종장에서는 두터비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두터비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도 매화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의인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②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매화', '준휘' 등에서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으나,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매화에게 '너'라고 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는 '두터비'라는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 일신이 수자 ᄒᆞ엿더니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
제재	여러 물것들(다양한 곤충들)
주제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 비판
특징	• 다양한 물것들을 열거하여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우의적, 해학적으로 표현함. •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들을 물것에 빗대어 비판·풍자함.

03 ④는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는 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두터비(두꺼비)'라는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반면 (나)는 상인을 동물에 빗대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약자인 백성에게는 군림하고 중앙 관리나 외세와 같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구는 탐관오리나 양반 계층을, (나)는 어렵고 장황한 말로 현학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인을 비꼬며 풍자하고 있다. ② (가)는 두터비의 말을, (나)는 상인과 행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③ (가)의 두터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넘어졌으면서도 자신이 날랬기에 피멍이 들지 않았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고, (나)의 상인은 게젓이나 게에 대해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04 (나)와 (다)의 화자가 풍부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둘 다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어려운 말로 게를 설명하는 상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는 화자를 괴롭히는 물것을 나열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 상인과 행인이 상거래를 하는 상황이나, (다)에서 화자가 물것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은 모두 일상적인 일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소소한 일상을 소재로 삼는 사설시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나)의 중장에서 화자인 상인은 게의 모습을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장황하게 나열하며 묘사하고 있다. ⑤ (다)에서 화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물것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 외형적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05 ㉠은 상인의 말로, 사람들에게 '동난지이(게젓)'를 사라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은 '낙월'(소극적 사랑을 의미함.)이 되겠다는 상대방에게, '구존비'(적극적 사랑을 의미함.)가 되라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학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게젓'을 '동난지이'라고 표현한 ㉠이다. ② ㉡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라며 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중고와는 관계가 없다. ④ ㉠은 사람들에게 '동난지이'를 사라고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은 죽은 뒤에 '낙월'이 되고 싶다는 '각시님'이라는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 ㉠은 사람들에게 '동난지이'를 사라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은 죽은 뒤에 '낙월'이 되고 싶다는 상대방에게 '구존비'가 되라며 중고한다는 점에서 해야 할 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06 ② 논밭 갈아 김매고 _ 작자 미상
한숨아 세한숨아 _ 작자 미상

가 논밭 갈아 김매고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농부
성격	한정적(閑情的), 전원적, 사실적
주제	힘든 농사일 속에 누리는 여유로움과 흥겨움
특징	• 농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함. • 구체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농부의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 줌. • 농사짓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함께 담고 있어 서민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음.

현대어 풀이

논밭 갈아 김매고 배잠방이 대님 쳐 신이 벗어지지 않게 동여매고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갈아 들러 메고 올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섶을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여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에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을 다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털어 잎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를 흥얼대다가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까 하는구나.

나 한숨아 세한숨아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화자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성격	수심가(愁心歌), 해학적
주제	그칠 줄 모르는 삶의 시름
특징	• '한숨'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 열거법과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한숨을 막고자 하는 화자의 행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함.

현대어 풀이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미장지, 세살장지, 가로닫이, 여닫이에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 뚝딱 박고, 용과 거북 장식의 자물쇠로 깊이깊이 채웠는데, 병풍처럼 덜컥 접고 족자처럼 데굴데굴 마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어찌된 일인지 네가 오는 날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87쪽

1 ① 2 ④ 3 ④

1 화자는 농사일을 하고 나서 잠시 쉬면서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산에서 나무를 한 뒤에 점심을 먹고 잎담배를 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③ 자신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공간의 이동(논밭 → 산속 → 샘)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④ '낫, 도끼, 지게, 지팡이, 곰방대, 잎담배' 등은 농부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들이다. ⑤ 김매기, 땔나무 하기 등 농부가 하는 노동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2 A는 근심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B는 고된 일상으로 인해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보기 1〉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가리킨다. A에서 화자는 '너 온 날 밤'이면 잠을 들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B에서 화자는 어젯밤에 오던 잠이 오늘 아침에도 온다며 한탄하고 있다. 그러므로 A와 B는 모두 현실에서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B에서 화자는 가사 노동을 해야 하는데 잠이 와서 괴로워하고 있다. 반면 A가 가사 노동에서 비롯된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② A에서 화자가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과, B에서 화자가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모두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난 것이다. ③ A에서 화자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에서 화자는 고된 일상으로 인해 고달픔을 느끼고 있을 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수 없다. ⑤ A와 B 모두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3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에서와 같이 한숨을 의인화하여 그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불어넣어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감정 이입을 사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88~089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② 05 ④

가 탐진어가 1 _ 정약용

핵심 정리	
갈래	한시(절언 절구)
성격	토속적, 사실적
제재	어부의 고기(뱀장어)잡이
주제	어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특징	• 어부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함. • 어부들이 고기잡이하는 모습과 흥겨운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함.

01 (가)의 '마파람'은 출항한 배가 돌아올 때를 알려 주는 자연 현상을 나타내고, (나)의 '석양'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가)의 '마파람'과 (나)의 '석양' 모두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계량 봄 바다에 뱀장어가 많아 그것을 잡기 위해 활선이 출항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어부의 일상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농부는 점심을 먹은 뒤 가진 휴식 시간에 '콧노래'를 흥얼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에 어깨를 추스리며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농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어부들은 '바다'에서 뱀장어잡이라는 노동을 하고 있고, (나)의 농부는 '산속'에서 땔나무를 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⑤ (가)의 '푸른 물결 헤치며'와 (나)의 '베거니 자르거니'는 서민들이 노동을 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2 (가)는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뱀장어잡이를 나서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점심', '석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산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때 내려오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의 '콧노래 흥얼대다가', '긴 소리 짧은 소리'에만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다 창 내고자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의지적
제재	창
주제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특징	• 답답한 화자의 심정을 꽉 막힌 방에 비유하여, '창'이라도 만들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 열거법과 반복법,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함.

03 (가)의 화자인 농부는 힘겨운 노동을 낙천적으로 수용하는 건강한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농부에게 ㉠은 일상적인 일터일 뿐, 자연과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공간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가)의 화자는 ㉠에서 일상적 노동을 하고 있다. ③ (나)의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로 볼 때 '아낙네'와 '남편'의 외로운 삶을,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를 통해 그들의 가난한 삶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아낙네'와 '남편'은 '호랑이'보다 더 두려운 '벼슬아치' 때문에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은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나)의 '아낙네'와 '남편'은 ㉡에서 노동을 함으로써 현실적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배경지식 >> 「산민」에 나타난 공간의 대비

이 작품에서 '산골짝'은 주위에 이웃도 없으며 척박하고 열악한 곳이다. 이와 대비되는 '평지'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과 횡포가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공간의 대비를 통해 백성들이 산골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가혹한 지배 계층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04 (나)에는 말의 순서를 바꾸어 쓰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나)는 '한숨'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여러 가지 문과 장치로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숨'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숨아 세한숨아'에서 '한숨'이라는 대상을 불러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돈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숨'을 명시적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뚝닥', '수기수기', '덜컥', '데데굴'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한숨을 막아 내려는 화자의 행위와 들어오려는 한숨의 행위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⑤ 한숨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문과 장치를 사용하여 애쓰는 화자의 모습에서 해학을 느낄 수 있다.

05 (다)의 화자가 중장에서 제시한 창을 내는 모습은, 화자의 마음속 상상일 뿐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나)의 화자는 한숨을 막아 내고자 하는 소망에서 여러 가지 문의 종류와 장치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것들로 막아 내도 어느 틈엔가 들어오는 한숨으로 인해 좌절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다)의 화자는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 종류와 문을 내는 데 필요한 도구 등을 나열하면서 가슴에 창을 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의 종장에서는 '너 온 날 밤이면'이라는 가정적 상황과 이로 인해 '잠 못 들어 하'는 화자의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근심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의 종장에서는 '이따금 하 답답할 제면'이라는 가정적 상황과 '여닫아 볼까 하'는 화자의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6 ③ 농가 구장 _ 위백규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화자	농사일을 하는 사람
성격	전원적, 사실적
주제	농사일과 보람
특징	•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농촌 생활을 하루의 흐름(〈제1수〉~〈제6수〉)에 따라, 그리고 계절의 흐름(〈제1수〉~〈제9수〉)에 따라 표현함.

현대어 풀이

〈제1수〉 서산에 해가 돋아 볕이 나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비 온 뒤에 묵은 풀이 누구의 밭에 더 짙어졌는가?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2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뽈 굽은 검은 소를 몰고
고들빼기 뜯어 먹이며 풀이 무성하게 난 시냇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짐을 진 벗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가?
〈제3수〉 뽑아내자, 뽑아내자, 긴 이랑을 뽑아내자.
바랭이와 여뀌를 고랑마다 뽑아내자.
쉽게 짙은(우거진) 긴 이랑은 마주 잡아 뽑아내자.
〈제4수〉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볕은 쬘 대로 쬔다.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을 흘려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듯이 머무는가?
〈제5수〉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 나물이라.
내 밥 많을까 걱정이요, 네 반찬 적을까 걱정이라.
먹은 뒤에 한숨 졸음이 오는 것이야 너나 나나 다르겠느냐?
〈제6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냇가에서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갈 때
어디서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가?
〈제7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는 피는 이삭이 곱구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만들 때 날 위하여 만드셨구나.
〈제8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겉절이를 담근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라.
아마도 밥 들여 놓고 잔을 잡을 때에 기쁨에 겨워하노라.
〈제9수〉 취하는 이 늙은이요, 웃는 이 아이로다.
잔 돌리는 막걸리를 고개 숙여 권할 때에
누가 흙장구 긴 노래로 춤 차례를 미루는가?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91쪽

1 ④ 2 ① 3 ③

1 〈제6수〉의 '우배초격'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농부의 소박한 풍류와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제6수〉는 한여름 농번기의 하루 일과를, 시선의 이동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② 〈제3수〉는 김을 매는 행위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지만, 〈제2수〉에 생성의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제5수〉는 설의적 표현('네오 내오 다홀소냐')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제4수〉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제7수〉~〈제9수〉에는 추수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이 드러날 뿐, 화자의 극적인 심경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농촌의 공동체적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기적인 세태 풍자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은 농촌 생활의 분주함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의 '청풍'은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 주는 소재로,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을 부는 것은 농촌 생활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은 참된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바라보는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⑤ ㉤은 밥을 먹은 뒤 한잠 자는 것은 타인과 화자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화자와 타인 사이의 동질감을 알 수 있다.

3 이 글은 소를 몰고 김을 매는 모습 등에서 동적인 이미지가 느껴진다. 〈보기 2〉 역시 화자의 시선이 배와 더불어 움직이며,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치는 모습과 물이 밀려오는 모습 등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생활 현장으로서의 농촌을 그리고 있으나, 〈보기 2〉의 '강촌'은 생활 현장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② 이 글은 화자가 자신이 노동하는 현장으로서의 농촌을 그리고 있으나, 〈보기 2〉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연의 경치를 그리고 있다. ④ 이 글의 〈제4수〉에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대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보기 2〉는 어부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강호 생활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2〉 모두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92~093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① 05 ②

가 십 년을 경영ᄒᆞ여 _ 송순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전원적, 풍류적
제재	전원생활
주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
특징	•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사상을 전개함. • 의인법, 비유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냄.

다 접목설 _ 한백겸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설(說)
성격	반성적, 성찰적, 일상적, 비판적
제재	나무 접붙이기
주제	나무 접붙이기를 통해 느낀 바와 수신(修身)의 다짐
특징	• 일상적 소재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드러냄. • 자신의 깨달음을 독자들이 받아들여 경계로 삼기를 바라는 교훈적 성격을 지님.

01 (가)에서는 '흔 간'이, (나)에서는 '둘러내자', '돌아가자'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 색채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③ (다)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다)는 복숭아나무에 접붙이기를 한 후 봄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모습을 묘사하며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구체적인 묘사나 계절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의 종장에서 화자가 '강산'을 '둘러 두고 보리라'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산'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 지은 '초려 삼간'은 초라한 세 칸의 초가집으로, '돌', '청풍'과 함께하는 공간인 동시에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묵은 풀'을 매는 '밭'은 화자가 건강한 노동을 하는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사발의 '콩잎 나물'은 농부들이 일한 뒤 먹는 점심으로,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화자가 듣는 '우배초적'은 건강한 노동 후에 느끼는 흥취라 할 수 있다.

배경지식 >> 「십 년을 경영ᄒᆞ여」에 드러난 물아일체의 경지

이 작품의 중장에는 화자와 '돌'과 '청풍'이 한데 어우러지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드러나 있다. 물아일체는 '대상과 하나가 되다.'라는 뜻으로,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를 나타낸다.

03 〈제1수〉는 해가 뜨자 김을 매기 위해 나서는 내용으로,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제3수〉의 '잡초 짙은 긴 사래 마주 잡아 둘러내자'에서 농부들이 함께 잡초 뽑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4수〉의 '청풍에 옷깃 열고'에서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5수〉의 '내 밥 많을세라 네 반찬 적을세라'에서 농부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6수〉의 '해 지거든 돌아가자 /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에서 해 질 무렵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4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보기〉이다. 〈보기〉는 4월에 심고 기를 만한 작물로 목화,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나)에는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구체적인 작물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제4수〉에서 바람을 쐬며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농사일이 한창이라 집에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할 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보기〉에는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 먹는 것과, '누에치기', '목화' 등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나타나 있으나, (나)에는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건강한 노동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묘사하고 있다. ⑤ (나)와 〈보기〉는 모두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는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다.

05 〈제4수〉의 '머무는고', 〈제6수〉의 '재촉하는고' 등과 같은 의문형 종결은 시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제3수〉에서는 '둘러내자'를, 〈제6수〉에서는 '돌아가자'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제1수〉~〈제6수〉는 한여름 농번기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제1수〉에서 집을 나선 후, 〈제3수〉~〈제5수〉에서는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6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5수〉에서 화자와 다른 인물들 간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3수〉에 농촌 생활의 분주함이, 〈제4수〉에 농촌 생활의 여유로움이 드러난다.

07 ① 상춘곡 _ 정극인

핵심 정리	
갈래	은일 가사, 양반 가사
화자	자연에서 봄 경치를 감상하는 사람
성격	서정적, 묘사적, 예찬적
주제	봄 경치의 완상과 안빈낙도
특징	•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다양한 표현 기법과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의 경치와 화자의 심경을 드러냄.

현대어 풀이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고? / 옛사람의 풍류를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 천지간 남자의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 산림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는 말인가? / 초가삼간을 시냇물 앞에 두고, /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살 속에 피어 있고, / 푸르른 버들과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 칼로 오려 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 낸 것인가? / 조물주의 신비한 공덕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못 이기어 /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이 이와 다르겠는가? / 사립문 앞을 (이리저리) 걸어도 보고, 정자에 앉아도 보니, /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리니 산속에서 보내는 하루가 적적한데, / 한가함 속에 맛보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 여보시오,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 풀 밟기는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질 하세. 〈중략〉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가느다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어 들고, /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널려 있네. / 아름다운 자연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겨울 들판이던 것이 (이제 보니) 봄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 청량한 바람과 밝은 달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 청빈한 선비의 살림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97쪽

1 ① 2 ② 3 ⑤

1 풍자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준흥에 빠진 화자의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새'가 '준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③ '흥이에 다를쏘냐', '어떤 벗이 있사올꼬', '이만한들 어찌하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가 본 봄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에 대한 정서도 아울러 드러내고 있다. 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는 실제로는 화자가 부귀와 공명을 꺼리는 것을, 부귀와 공명이 화자를 꺼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

2 화자는 부귀공명을 꺼리고 청풍명월(자연)을 벗 삼고 있으며, 단표누항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은 향유의 대상이지 화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③ 화자는 자연 속에 있는 현재의 삶을 즐기며 만족하고 있다.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⑤ 자신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며 연군의 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애를 다룬 고전 시가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이 글에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3 '단표누항'은 화자가 누리는 소박하고 청빈한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헛된 생각'은 화자가 자신을 꺼린다고 표현한(사실은 화자가 꺼리는) '공명'과 '부귀'에 대한 생각(욕망)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홍진', 곧 세속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묻는 방식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의 그것에 충분히 미친다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월감을 표현한 것이다.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라는 의미이다. ④ '청풍명월', 곧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98~09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⑤

나 고산구곡가 _ 이이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교훈적, 예찬적, 풍류적
제재	고산의 아름다움 예찬과 학문의 즐거움
주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
특징	•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함.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하루의 시간적 순환과 한 해의 질서를 드러냄.

01 (가)는 석양 속에 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와 가랑비 속에 푸른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라는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는 〈제10수〉에서 눈 속에 묻힌 '기암괴석'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가), (나) 모두와 관련이 없다. ③ (가), (나) 모두 점증적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으며, 대상과의 거리감보다는 친화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02 ㉣은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승지를 알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묻는 방식을 활용하여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홍진에 묻힌 분네'라는 청자에게, 화자 자신의 삶이 (그들의 삶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묻는 것이다. 이는 화자의 삶이 청자의 삶과는 다름(우월함)을, 질문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이웃들'이라는 청자에게 산수 구경을 가자고 권유하는 것이다.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이나 '동질성 회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술

동이가 비었으면 자신에게 알려 달라는 것으로, 화자가 청자의 부탁을 수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은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하는 이들을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03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는 춘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를 새에 투영하여,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 교태를 떠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김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의 풍류에 비해 손색이 없는 삶을 사는 자신을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답청일랑 ~ 조수하세'에서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준흥을 즐기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연의 향기와 색깔이 화자의 잔과 옷에 스민다는 표현에서 화자와 자연이 일체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청류를 굽어보니 ~ 저 들이 그곳인가'에서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준흥이 점점 고조되어 자신이 있는 공간을 이상향에 가깝다고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 「상춘곡」에서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에는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이 있다. 유거는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으로 삼아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거가 나타난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 체험을 보여 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유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동반한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은 유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4 ⓔ는 실제로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것을,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부귀공명을 멀리하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는 자연물인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준흥을 즐기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 정서와 상반된 자신의 심정'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아침과 저녁에 할 일을 드러낸 것이다. ③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공감각적 심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무릉에 대한 관용적인 연상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표현한 것은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현재 속한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다.

05 '검은 들'이 '봄빛'으로 넘친다는 것은 겨울 들판에 봄기운이 완연하다는 의미이다.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합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는 '석양'과 내리는 '세우'의 하강 이미지와 그 속에 피어나는 '꽃'과 파랗게 돋는 '풀'의 상승 이미지를 '균형' 있게 표현하여 조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②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으로 봄놀이의 내용을 안배하는 것에서 '절제와 균형'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꽃나무 가지'로 술잔을 세는 모습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대부의 '절제'된 풍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술과 더불어 '청향'과 '낙홍'에 취해 고조되는 감정을 '진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스리는 것에서 '절제와 균형'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07 ② 면앙정가 _ 송순

핵심 정리	
갈래	서정 가사, 은일 가사, 양반 가사
화자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사람
성격	서정적, 자연 친화적, 묘사적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주변 경관의 외양 변화를 묘사함. • 대구법, 반복법 등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함. •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함.

현대어 풀이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구나. /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고 /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 올라가거니 내려가거니 먼 하늘로 떠가거니, /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 석양과 섞여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 가마를 재촉해 타고 /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 푸른 버드나무에서 우는 꾀꼬리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이 울창한 때에 / 긴 난간에서 긴 졸음 내어 펴니, / 물 위에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가? / 된서리 걷힌 후에 산 빛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는고? / (고기잡이를 하며 부는)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눈에) 묻혀 있거늘 /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눈과 얼음으로 꾸며 내니 / 경궁요대와 옥해 은산 같은 풍경이 눈 아래에 펼쳐졌구나. / 온 세상이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할 겨를이 없다. /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니 /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 사립문은 누가 닫고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 (자연을 구경하기에) 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하랴? 〈중략〉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겠느냐? /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게 하고 켜게 하며 흔들면서 /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어 있으랴? /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 놓고 노니, /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더니 이때가 그것이로구나. / 신선이 어떻든지 이 몸이 그것이로구나. /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 끝없고 정다운 회포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인가? /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01쪽

1 ② 2 ④ 3 ④

1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황앵(꾀꼬리)' 등의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은 나오지 않는다. ④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 '황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으므로 화자의 심리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자연의 풍경에 대한 자신의 정서만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2 화자가 현실의 고난 때문에 자연으로 도피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자연 속의 삶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지막 부분에서 '역군은'이라고 한 것을 통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함을 알 수 있다. ② 준하추동의 계절 변화에 따른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③ '희황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긔로고야'에서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의 복희 황제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태평성대로 여기며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이태백이 사라 오다 / 호탕 정회야 이예서 더홀소냐' 등에서 화자가 자신을 신선에 빗대고 이태백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강호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호연지기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지식 ›› 「면앙정가」에 나타난 공간

문학 작품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공간 및 주변 경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 인식은 주체의 지향이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암시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함께 풍류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소나무 아래 굽은 길을 오가는 화자는 꾀꼬리의 교태 겨워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태도와의 동일성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경치라는 화자의 인식은, 몸이 한가할 겨를이 없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3 이 글에서 화자가 부는 '픙람'은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기〉에서 화자가 부는 '파람'은 농사일을 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글의 '픙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한 것이고, 〈보기〉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양풍'은 자연을 의미하고, 〈보기〉의 '청풍'은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고 볕을 쬐다가 잠시 쉬면서 쐬는 맑은 바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청풍'은 흥겹게 일을 한 다음에 느끼는 시원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글의 화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풍'이 일을 한 다음에 느끼는 시원함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의 '벗'은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보기〉의 '길 가는 사람'은 노동 후에 휴식을 취하는 화자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참된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양반 사대부를 의미한다.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탈속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의 '양풍'과 '벗'은 화자의 흥취를 돋우는 역할을 할 뿐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의 '청풍'과 '길 가는 손님'은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시적 배경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의 '양풍'과 '픙람'은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지 않으며, 〈보기〉의 '청풍'과 '파람'이 시상을 매듭짓고 있지도 않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02~10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나 강호구가 _ 나위소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풍류적
제재	강호에서의 생활
주제	한가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와 연군지정
특징	• 유교적 중의 사상과 소박한 삶 속에서의 안분지족을 드러냄. •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함.

01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온가짓 소릐로 취흥을 ᄇᆡ야거니(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을프락 ᄑᆞ람ᄒᆞ락(시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든 '병'에 빗대어, 어떤 약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으므로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믈결이 비단 일다(물결이 비단 같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인간을∨써나 와도∨내 몸이∨겨를 업다'와 같이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도 '돌 붉고∨부람 자니∨믈결이∨비단 일다'와 같이 4음보를 사용하여 규칙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이태백'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제9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화자 자신의 삶을 '강호한적'으로 표현하며, 낚시를 하는 생활을 괴롭게 여기는 '혐 업슨 아히들(생각 없는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다.

02 〈보기 1〉은 강호가도(江湖歌道)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이 몸이 이렁굼도 역군은이샷다'와 (나)의 〈제3수〉의 '긔 성은인가 ᄒᆞ노라'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ㄱ). 또한 (가)의 '인간을 써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와 (나)의 〈제3수〉의 '강호에 바리연디 십 년 밧기 되어 세라(강호에서 지낸 지 십 년이 넘었구나)'를 통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ㄴ).

오답 해설 ㄷ. (가)의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에서 자연 속의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제5수〉의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가 ᄒᆞ노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화자가 누리는 자연 속의 흥취를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ㄹ. (가)에는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도 낚시를 하는 한가한 모습이 나타날 뿐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가 매화사 _ 안민영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예찬적
제재	매화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특징	• 매화를 의인화하여 매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 영탄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매화를 예찬함.

03 (가)는 매화를 예찬하고 있으므로 구슬프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나)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흥취가 드러나 있으므로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잔 잡아 권할 적'을 통해 조촐한 술상을 소품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나)의 '남여를 재촉해 타고'와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를 통해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③ (가)는 매화가 피는 '백설 양춘(음력 정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늦겨울이나 초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나)는 '산람'이 이는 봄과 '녹음'이 우거진 여름, '산빛이 금수' 같은 가을, '빙설'로 꾸며 낸 겨울이 나타나므로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가)는 '달'이 오르는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사양(석양)', '달'을 통해,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는 '매영(매화 그림자)이 부딪힌 창', '동각(동쪽의 누각)', '거문고' 등의 시어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한옥의 뜰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나)는 '백척 난간'에서 내려다보는 산빛과 강산의 모습으로 보아,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04 ㉢은 된서리가 걷힌 후에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가을 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앞 구절까지는 여름이고 ㉢은 가을이므로 풍경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 뒤에 이어지는 홍에 겨운 피리 소리로 볼 때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황앵'은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여름이 되어 흥을 즐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② '긴 조으름'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한가로운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④ '어적(피리 소리)'이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달'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다. ⑤ 온 세상이 풍성하고 가는 곳마다 경이로운 경치라는 의미로, 사계절의 자연 풍경을 통해 느낀 감회를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08 ① 속미인곡 _ 정철

핵심 정리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화자	갑녀(주변 인물)와 을녀(중심인물)
성격	중신연주지사, 서정적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연군지정)
특징	• 두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킴. •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며 임에 대한 사랑(충정)을 강조함.

현대어 풀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 해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 아아, 너로구나. 내 사정 이야기 들어 보오. / 내 모습과 이 행동이 임이 사랑함 직한가마는 /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 나도 임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 아양이야 애교야 어지러이 굴었더니 /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하겠는가? /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 그렇게 생각 마오. / 맺힌 일이 있습니다. / 임을 모시고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중략〉 임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 하니 /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 산천이 어두우니 해와 달을 어찌 보며 / 지척을 모르거든 천 리를 바라보랴? 〈중략〉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 벽에 걸린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 어느덧 힘이 다하여 선잠을 잠깐 드니, /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아뢰려 하니 / 눈물이 쏟아지니 말인들 어찌 하며 / 정을 못다 풀었는데 목조차 메었으니, /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 아아,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갔는가? /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 불쌍한 그림자가 날 좇을 뿐이로다. /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 임 계신 창문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 각시님, 달은커녕 궂은비나 되소서.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05쪽

1 ③ 2 ② 3 ②

1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에서 '각시'로 지칭된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계절의 변화도, 화자의 감정 변화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의 정서와 사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은 대화의 전개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⑤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은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모첨 찬 자리', '밤' 등은 임과 헤어진 화자의 외로운 내면과 상응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속미인곡」의 화자

이 작품의 화자는 두 명으로, 시상을 이끄는 중심 화자인 '을녀'와 보조적인 화자인 '갑녀'가 등장한다. 갑녀와 을녀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들이다. 갑녀는 작품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을녀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심 역할을 한다. 또한 갑녀는 을녀의 대답을 유도하며, 결사에서는 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는다. 반면 을녀는 갑녀의 질문에 대답하며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2 ㉠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라는 한탄을 통해 볼 때, 외로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또한 ㉡은 임을 만나는 중인 화자의 꿈을 깨게 함으로써,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라며 화자가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각성하고 허망감을 느끼게 한다.

오답 해설 ① ㉡은 (꿈에서나마) 임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망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은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과 관련이 없다. ㉡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지만, 그 자체가 화자의 현실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고, ㉡도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다. ⑤ ㉡은 화자의 잠을 깨운다는 점에서 소망 실현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화자의 소망 실현을 돕는 대상이 아니다.

3 화자는 임과 헤어진 것이 '내 몸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그 헤어짐을 '조물의 탓'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기〉와 연결시켜 이해하면, 작가는 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임'과 지냈던 곳이 '천상 백옥경'이므로, 화자가 이별한 임은 옥황상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임금과 대응하므로 '천상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궁궐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옥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은 '임'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이를 〈보기〉에 대응하면 떨어져 있는 임금을 걱정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하게 느끼는 것은 임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겠다는 것은 항상 '임'을 위하겠다는 뜻이므로 임금에 대한 작가의 중성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06~107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나 사미인곡 _ 정철

핵심 정리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성격	중신연주지사, 서정적, 연모적
제재	임금에 대한 사랑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주요 소재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충정)을 표현함. • 여성 화자에 빗대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호소함.

다 사노친곡 _ 이담명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서정적, 애상적, 한탄적
제재	노모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주제	고향에 계신 노모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특징	• 자연 현상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함. • 임금에 대한 감사와 예찬을 통해 노모와의 재회를 간절히 소망함.

01 (가)의 '셜워 플텨 헤니 조믈의 타시로다'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서운함으로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의 〈제7수〉에서 '구름'은 작가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임금을 연모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쌀쌀하고 적막한 가운데 '매화'에서 '암향'이 나고 있는데, 이는 임금에 대해 절개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에는 '성은'을 갚을 길이 없다며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와 (나)는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임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가)의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싸혀시니'에는 산같이 쌓여 있는 자신의 죄를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다)의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이 박벌이라'에는 유배가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라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다)의 '영로ᄂᆞᆫ 수천 리'는 노모와 화자의 거리감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유배지에서 느끼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낸다.

02 [A]의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와 [B]의 〈제6수〉의 초장, 중장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A]의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싸혀시니'와 [B]의 〈제1수〉의 중장('이 ᄑᆞᆯ 프르기 ᄀᆞ티')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A]의 '누어 싱각ᄒᆞ고 니러 안자 헤여ᄒᆞ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와 [B]의 〈제1수〉의 초장, 〈제2수〉의 초장에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④ [A]와 [B] 모두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A]와 [B] 모두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03 '님이신가 아니신가'를 통해 ㉠이 부재하는 대상인 임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고, '님 계신 ᄃᆡ 보내오져'를 통해 ㉡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정성을 전달하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소재로, 임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임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 화자의 심리적 방황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④, ⑤ 모두 ㉠, ㉡과 관련 없는 설명이다.

04 ⓐ는 화자의 잠을 깨워 임이 부재하는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하고 있다. ⓑ도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깨뜨리는 소재이고, ⓑ는 날지 않음으로써 노모에게 화자의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소재이다. ② ⓐ와 ⓑ 모두 감정 이입과는 관련이 없다. ③ ⓐ와 ⓑ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과는 관련이 없다. ⑤ ⓐ와 ⓑ 모두 자연물에 해당하지만, 화자가 이에 대해 경외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08 ② 규원가 _ 허난설헌

핵심 정리	
갈래	규방 가사
화자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성격	원망적, 한탄적, 체념적
주제	봉건 제도하에서 겪는 부녀자의 한(恨)
특징	• 여인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심리 묘사가 잘 나타남. • 설의법, 대구법, 직유법, 대조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 •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현대어 풀이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밉게도 되었구나. /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임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 호사로운 행장을 하고 어디 어디 머물러 노는가? / (임의) 행방을 모르는데 (임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지만 (임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 (임의) 얼굴을 못 보거니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루하다. /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는가? / 겨울밤 차고 찬 때 자국눈 섞어 내리고, / 여름날 길고 긴 때 궂은비는 무슨 일인가? /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정치를 보아도 아무 감흥이 없다. / 가을 달이 방에 들이비추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 긴 한숨 쉬며 눈물이 흐르는데 (헛되이) 생각만 많구나. /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 돌이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 등불을 돌려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 벽련화 한 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 소상강 밤비에 댓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 망주석(무덤 앞에 세우는 돌기둥)에 천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마는 /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 안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 마음속이 굽이굽이 끊어졌도다. /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려 하니 /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 칠월 칠석날 일 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가? /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를 바라보니, /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 대 수풀 우거진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다고 하지만 /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하여라.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09쪽

1 ③ 2 ① 3 ③

1 화자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반어법을 통해 이러한 처지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니 /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스 일고' 등에서 대구법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운율감이 강조되고 있다. ② '매화', '겨울밤', '여름날', '삼춘화류', '가을 달' 등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④ '자취눈', '궂은비', '초로', '모운' 등의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함이 부각되고 있다. ⑤ 화자의 과거 모습을 표현한 '설빈화안'과 현재 모습을 표현한 '면목가증'의 대조를 통해 현재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이 글은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게 규방에서 지내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쓸쓸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 맞다. 그러나 〈보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말도 못 하고 헤어진 '아가씨'의 애틋한 마음을 제3자의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관찰자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 화자는 서럽거나 외로운 자신의 감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의 '아가씨'는 달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어디어디 머무는고' 등과 같이 남편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만, 〈보기〉의 '아가씨'는 남모르게 눈물만 흘릴 뿐 임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아가씨' 모두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아가씨' 모두 임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애달픈 감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배경지식 ›› 「규원가」와 일반 규방 가사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규방 가사는 지아비(임)를 공경하고 지아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즉, 당시의 유교적 윤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반면 이 작품은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한과 한탄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 즉, 유교적 윤리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일 년에 한 번(칠월 칠석)은 만나는 존재이다. 이는 임을 전혀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어느 임이 날 괼소냐'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현재 화자의 처지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다. ② '스스로 참괴하니'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를 표현한 부분으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다. ④ '날 같은 이 또 있을까'는 자신처럼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지내는 외로운 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⑤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는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하다는 의미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부분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10~111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①

나 재 위에 우뚝 선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제재	소나무, 버들
주제	임과 이별한 슬픔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특징	•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승화시킴. •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자연물과 화자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슬픔과 거리를 두어 해학미를 유발함.

01 [A]에는 '봄바람', '가을 물', [B]에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가 나타나 있다. [A]에서는 세월이 빠르게 흘러 '설빈화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으로 바뀌었으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을 화자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의 '베오리에 북 지나듯'은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베틀)를 활용하여 세월이 빠르게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길고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구절을 사용하여 겨울과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은덕은덕'과 '은들은들'이라는 비슷한 의태어를 사용하여 소나무와 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유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B]와 [C]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2 화자는 집에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나마 남편을 만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남편과 만나지 못하는 것)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만나 인연을 맺은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은 이미 남편(임)과 만난 상황이므로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회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곧 일어날 일(꿈에서 남편을 만나는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 앞부분에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이라는 구절로 보아 화자는 남편과의 인연을 우연이 아닌 운명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 재회의 필연성이나 그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지도 않다.

03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임(남편)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고 하였다. 상에서 우는 '실솔'은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다고 하였다.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은덕은덕'하는 소나무를 통해, 임과 헤어져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과 대비되므로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버들'은 화자의 내면처럼 흔들린다는 점에서 화자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후루룩 비쭉'하는 입과 코를 통해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함으로써 슬픔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반면 (가)의 화자는 '긴 한숨 지는 눈물'을 통해 슬픔을 확장하며 펼쳐 내고 있다.

04 ⓐ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의 슬픔과 쓸쓸함을 담고 있다. ⓑ는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는 임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자신을 잊은 채 깊이 잠든 임을 깨우고자 한다. 따라서 ⓑ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와 ⓑ 모두 지조나 변절과는 관련이 없다. ② ⓐ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능동성과는 관련이 없다. ⓑ는 임의 방에 들어가 잠든 임을 깨우려는 적극적 행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③ ⓐ는 회상의 대상이 아니며, ⓑ도 회상의 매개체가 아니다. ④ ⓐ는 가을에 우는 귀뚜라미라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는 임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귀뚜라미의 넋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비유적 의미로 볼 수 있다.

05 (가)의 '꿈'은 그리운 남편을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남편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보기〉의 '꿈' 역시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꿈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 모두 꿈이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니다. ③ (가)와 (나) 모두 꿈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에 대한 대상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현실의 문제가 꿈을 통해 극복되고 있지는 않다.

09 ① 누항사 _ 박인로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화자	가난한 양반
성격	사실적, 전원적
주제	곤궁한 생활상과 빈이무원의 태도
특징	•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와 곤궁한 사대부의 삶을 보여 줌. • 가난한 처지로 인한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림. •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과, 사대부로서의 이상 간의 괴리가 나타남.

현대어 풀이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겨 두고 / 누추하고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 놓고, / 바람 부는 아침과 비 내리는 저녁에 썩은 짚이 땔감이 되어 / 세 홉 밥과 다섯 홉 죽을 끓이는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 덜 데운 숭늉으로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 내 생활이 이러하다 하여 대장부의 뜻을 바꿀 수 있겠는가? / 가난하더라도 편안히 여기며 근심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적게나마 지니고 있어 / 옳은 뜻대로 살고자 하니 (날이) 갈수록 일이 어긋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중략〉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때에 / 서쪽 두둑이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 길 위에 흘러내리는 근원 없는 물을 반만큼 대어 두고, / 소 한번 빌려주겠다 하는 탐탁지 않게 하는 말을 /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 달도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 굳게 닫은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큰 기침 에헴 소리를 꽤 오래도록 한 뒤에 / "아, 거기 누구신가?" (하고 묻는 말에) "염치없는 저올시다." (하고 대답하니,) / "초경(저녁 7시~9시 사이)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와 계신가?" (하기에) / "해마다 이러하기가 염치없는 줄 알건마는 /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 왔노라." (하니) / "공짜로나 값을 치르거나 해서 빌려줄 만도 하다마는 /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 목 붉은 수꿩을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 내고 /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거든 / 이러한 고마움을 어찌 아니 갚겠는가? / 내일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 약속을 어김이 미안하니 말하기가 어려워라."(라고 한다.) /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할까? / 헌 갓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니 / 풍채 작은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중략〉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더니 / 먹고사는 일이 거리낌이 되어, 아아, 잊었도다. / 저 물가를 보전대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 다오. /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 임자가 없는 자연 속에 절로절로 늙어 가리라.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13쪽

1 ① 2 ③ 3 ④

1 소 주인과 화자의 문답 형식을 활용하여 소를 빌리려다 소 주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화자의 체험을 사실적, 서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해학적 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소 주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부분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⑤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이후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2 화자는 곤궁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강호의 꿈을 생각하며 극복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가 처한 상황은 '곤궁한 현실'이지 '대상과의 이별'이 아니다. ④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드러나지만 이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비판 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⑤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3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잊었구나'는 현실적 삶에 구애되어 이상을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이다. 뒤에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고 있을 뿐, 신분제의 동요와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불만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사대부인 화자가 소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으려 한다는 점에서 '양반의 경제적 몰락'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와 그 뉘신고 ~ 설마 어이할고'는 소 주인과 화자의 대화가 사실적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조선 전기 가사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술과 안주를 제공한 사람에게 소를 빌려주려 하는 소 주인의 모습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민중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자연 속에서 늙어 가겠다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양반들이 지향하던 관념적인 삶의 모습(자연 친화적인 삶의 지향)'을 보여 준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14~115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④

가 빈천을 팔려고 _ 조찬한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풍자적
제재	빈천, 강산풍월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살려는 마음
특징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 • 자연에 귀의한 삶의 즐거움이 드러남.

01 (가)는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이해타산에 밝은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는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일단심을 잊을런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애상적 분위기와도 거리가 있다. ② (가)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는 찾을 수 없다. ③ (나)의 '에헴이'를 의성어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가)와 (나) 모두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찾을 수 없다.

02 (가)의 화자는 '강산과 풍월'을 지키려 하고, (나)의 화자는 '안빈 일념'을 품은 채 '일단심'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의 화자는 모두 현실과 타협하거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②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산과 풍월'을 지키려는 모습은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준

다. ③, ④ '누항'은 가난으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배경지식 >> 「누항사」에 나타난 '안빈낙도'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사대부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03 '구슬 같은 기름'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사물(기름)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지 인물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굳게 닫은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큰 기침 에헴이를 오래토록 하'는 모습은 절박한 처지를, '헌 모자 숙여 쓰고 죽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 오'는 모습은 초라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소 주인과 화자가 일상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가난하고 구차한 화자의 현실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주로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화자와 소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중심인물인 화자가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04 ⓔ의 벽에 걸린 쟁기는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한탄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다. ⓒ의 심리(시름을 잊고자 함.)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말한 '대장부의 뜻'은 이어지는 구절의 '안빈 일념'(ⓐ의 심리에서 드러나는 가치)이다. ② ㉡은 사대부인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의 상황) 다급하게 소를 빌리려 하는 모습이다. ③ ㉢은 소를 빌리지 못한 화자가 현실의 한계 앞에서 암담함을 느끼는(ⓑ의 심리) 모습이다. ⑤ ㉣에서 낚싯대를 빌리는 것은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 한가롭게 늙는 삶(ⓒ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09 ② 탄궁가 _ 정훈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화자	가난한 사대부
성격	사실적, 체념적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특징	•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가난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가난을 '가난귀신'으로 의인화하여 가난으로 인해 괴로운 상황을 표현함.

현대어 풀이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루 하려마는 /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가? / 삼십 일에 아홉 끼니를 얻거나 못 얻거나 /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 안회의 표주박이 자주 비었다고 한들 나같이 비었으며 /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 봄날이 따뜻하여 뻐꾸기가 재촉하거늘 / 동쪽 집에 쟁기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고 /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먹었고 / 기장과 조, 팥은 서너 되가 안 되거늘, / 춥고 배고픈 식구 이리하여 어찌 살리? / 이봐 아이들아, 어쨌거나 힘써 살아가라. / 죽(을 쑤어) 국물은 상전이 먹고 좋은 건더기는 종을 주었는데 / (종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만 낀다. / 올벼는 한 발만 수확하고 조와 팥은 다 묵히니 / 싸리피, 바랭이 (같은 잡초)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채워 낼까? / 백방으로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 장초 나무가 아무 걱정 모르는 것이 부러우나 어찌하리? /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 겨울이 덥다 한들 몸을 어찌 가리울까? / 베틀 북은 쓸데없이 빈 벽에 걸려 있고 / 시루 솥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 세시 절기, 명절 제사 무엇으로 해 올리며 /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찌하여 대접할까? / 이 몰골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 이 원수 가난귀신을 어찌해야 떨쳐 버릴까? / 술에 음식을 갖추어서 이름 불러 전송하여 /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 (가난귀신이)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하는 말이 /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쁨과 슬픔을 너와 함께하여 /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 어디 가서 뉘 말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협박하거늘 / 도리어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도다. /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 너 혼자 믿음 있어 나를 안 버리니 / 위협하며 피하여서 잔꾀로 이별하겠는가? / 하늘이 준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찌하리? /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하여 무엇 하리?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17쪽

1 ③ 2 ② 3 ③

1 [A]에서 화자는 하늘이 만든 자신의 가난한 인생에 대해 '이다지도 괴로운고'라며 탄식하고 있지만, [B]에서는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며 가난에 대해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② [B]의 '설마한들 어이하

리'에서 화자는 가난한 처지를 체념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낙관적 세계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의 '나같이 비었으며'는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회보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B]의 '빈천도 내 분수니'는 자신감이 약화된 표현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체념과 수용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 ⑤ [A]의 '나같이 극심할까'는 화자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극심하여 괴로운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는 우월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2 ㉡은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그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이지, 가난을 핑계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종들에게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은 남들에게는 예년에 비해 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의복조차 제대로 없는 자신에게는 춥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당장 먹고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⑤ ㉤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온 친척들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다.

3 ㉥는 '원수와 같은 가난귀신을 어떻게 해야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주인이 종에게 농사일을 독려하기 위해 죽을 끓여서 주인은 물만 먹고 건더기를 종에게 주며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종에 대해 권위를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대부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② ⓑ는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편으로 세시 절기와 명절에 지내야 하는 제사를 해 올릴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④ ⓓ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화자의 비관적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⑤ ⓔ는 가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한들 소용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18~119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⑤ 05 ④

나 농가 구장 _ 위백규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전원적, 사실적
제재	농사일
주제	농사일과 보람
특징	•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농촌 생활을 하루의 흐름(〈제1수〉~〈제6수〉)에 따라, 그리고 계절의 흐름(〈제1수〉~제9수〉)에 따라 표현함.

다 석죽화 _ 정습명

핵심 정리	
갈래	한시(오언 율시)
성격	서정적, 상징적
제재	패랭이꽃
주제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함. • 소재의 대비를 통해 현실을 풍자함.

01 ㉤ 앞의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 원근 친척 내빈왕객은 어이하여 접대할꼬'는 화자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즉,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궁핍한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거나 죄책감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 '올벼 씨 한 말'은 파종할 볍씨이다. 화자는 가난한 향촌 사대부로서 농사를 지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인데, 볍씨를 쥐가 반 넘게 먹은 상황이므로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② ㉡: 곡식이 없어 솥 시루를 쓸 일이 없자 시루에 녹이 슬어 붉은빛이 보이는 상황은,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④ ㉣: 앞에 제시된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를 통해 농사를 위해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을 통해 예정된 차례대로 서로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해 협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향촌 공동체의 사회적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보기〉의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과 연관 지을 때, 밥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하는 모습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2 (가)의 '무엇하리'에는 화자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다)의 '붙이누나'에는 '외진 땅'에 있어 사람들이 '아리따운 자태'를 알지 못하는 '좋은 꽃떨기(패랭이꽃 =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궁귀'는 화자로 하여금 가난에 대한 태도를 변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의 '모란'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② (다)의 '외진 땅'은 패랭이꽃이 피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의 '사방'은 '궁귀'가 떠나가기를 화자가 바라는 곳으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③ (가)의 '유신'은 대상인 '궁귀'가 화자를 대하는 태도를 뜻한다. '궁귀'는 화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화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또한 (다)의 '양기'는 패랭이꽃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으로, 화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가)의 '하늘'은 화자에게 가난을 내린 존재이지, 화자의 신세를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다. 반면 (다)의 '농부'는 패랭이꽃(화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존재이므로 화자의 신세를 위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탄궁가'의 '궁귀(窮鬼: 가난귀신)'의 역할

이 작품은 가난을 '궁귀(窮鬼)'로 설정하여 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난을 '궁귀'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가난이 화자의 일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혀 왔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일생을 괴롭혀 온 이 '궁귀'를 마침내 내치려 하는데, '궁귀'는 화를 내며 오히려 화자를 나무란다. 이에 화자는 '궁귀'의 말을 옳게 여기고 얕은꾀로 '궁귀'를 내치려 한 자신을 반성한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궁귀'는 화자의 생각을 꾸짖음으로써,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후회하게 하고 결국 가난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궁귀'의 역할로 보아, '궁귀'는 작가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가난을 둘러싼 작가의 내면적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3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는 있지만,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일 뿐 초월적 존재 예찬과는 관련이 없다. 반면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는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신 '하느님'을

예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술에 후량(음식)'을 갖추고 화자가 '궁귀'의 이름을 부르며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전송하는 것은, 의례에 따라 '궁귀'를 멀리 떠나보내는 예우를 표현한 것이다. ② [B]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를 통해 화자가 시간의 경과를 의식함을 알 수 있으며,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를 통해 풍성하게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알 수 있다. ③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 빈천도 내 분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가난을 운명적인 것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에도 농사를 짓는 화자와 '면화', '벼'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④ [A]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는 화자가 '궁귀'의 말을 옳다고 수용하는 태도이다. 또한 [B]의 '칠월이 반이로다'는 벼가 패어 곧 수확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04 〈보기〉의 화자는 작품 전반에 걸쳐, 가난하지만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가)의 화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궁귀'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보기〉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한 교훈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화자가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자연을 동경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의 화자 또한 자연을 동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가)와 〈보기〉 모두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가)의 화자는 '궁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 않다. 〈보기〉의 화자 역시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을 뿐,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05 '춘일'을 통해 (가)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봄을 배경으로 파종할 볍씨도 부족하고 끼니조차 잇기도 어려우며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도 곤란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궁귀'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는 있으나,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빠꾸기'를 통해 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③ 봄의 풍속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화자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⑤ 봄이라는 계절은 알 수 있지만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의 섭리도 드러나지 않는다.

10 ① 관동별곡 _ 정철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기행 가사
화자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는 위정자
성격	서정적, 지사적, 서경적
주제	금강산과 관동의 절경 유람 및 애민 정신
특징	• 대구법, 은유법 등을 활용하고 고사를 인용하는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 •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현대어 풀이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 서호의 옛 주인(임포)을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 정양사 진헐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 (저 수많은 봉우리들이) 나는 듯하면서도 뛰는 듯도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다. /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떠받쳐) 괴고 있는 듯하구나. /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여. / (망고대와 혈망봉은)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 아, 너로구나. 너 같은 것이 또 있겠는가? /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 만이천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 것이지, /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 천지가 생겨날 때에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하구나. 〈중략〉 그 앞의 넓은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은 (화룡소의 물이) / 밤낮으로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 (바람과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비를 뿌리는 전설 속의 용처럼)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 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 (눈앞에 펼쳐진 십이 폭포는)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 내어 /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았으니 / (산수) 도경에는 열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중략〉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 해 뜨는 곳 가까이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 상서로운 빛줄기가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 샛별이 돋아 오를 때까지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을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21쪽

1 ④ 2 ② 3 ③

1 ㉤은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월출을 기다리며 본 장면일 뿐이다. 이를 통해 나라의 앞날이 밝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서호 넷 주인'인 임포는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인물로,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다. 화자는 자신을 이러한 임포와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신선 사상을 통해 풍류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조물주가 야단스럽다고 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③ 화자는 ㉢의 앞에서 산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도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될 것이라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서 달이 비치는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는 것은 선정의 포부와 애민 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2 ⓐ는 금강산의 맑은 기운을 흩어 내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우국지정)을, ⓒ는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다.

오답 해설 ⓑ는 화자가 화룡소에 갔음을, ⓓ는 십이 폭포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다.

3 화자는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생겨날 때에 금강산의 만이천 봉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늘의 뜻이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라고 여길 뿐, 자연의 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혈망봉'은 '천만겁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 대상, 즉 변치 않는 지조를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화자가 지조라는 가치를 투사하여 '혈망봉'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② 맑고 깨끗한 금강산의 기운을 흩어 내어 인걸을 만들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개심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관찰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있다.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를, 은하수를 베어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폭포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미를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에 대해 이백도 여산의 폭포가 더 낫다는 말을 못 할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으로, 현실에서 발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22~123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나 유한라산기 _최익현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기행 수필
성격	객관적, 묘사적, 사실적
제재	한라산의 진면목
주제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
특징	• 글쓴이의 강인한 정신과 치밀한 관찰력, 비판적 안목이 담김. • 글쓴이의 흥취를 대화, 명시(名詩), 명구(名句) 등을 인용하여 표현함.

01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여정으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곳을 간단히 나열하면서 서술어를 '너머 디여'로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넙거나 넙은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개와 높은 경지를 떠올리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의 '뎌 디위'는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호연지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는 화자가 헤아릴 수 없는 성현의 높은 기개와 정신적 경지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③ ㉢의 '삼일우'는 '음애예 이온 풀'을 살려 낼 수 있는 소재로, 죽어 가는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음애예 이온 풀'이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은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정치적인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의 '남여'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의미하고 '완보'는 '느린 걸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줄 뿐,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으며, 화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배경지식 ›› 「관동별곡」의 표현상 특징

이 작품은 생략과 비약에 의한 내용 전개, 역동적인 움직임의 포착에 의한 박진감 있는 경치 묘사가 특징이다. 즉, 대표성을 가진 하나의 사물만으로 전체의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과감한 생략과 압축된 표현으로 박진감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대구, 비유, 반복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역동적으로 경치를 묘사하여 생동감과 경쾌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02 화자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이 공자의 높은 경지에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경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다고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③ 화자는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찬양하며,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은 노국이 좁은 줄도 모르는 데 반해, 천하를 작다고 한 공자의 호연지기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비로봉을 바라보며 동산,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호연지기를 떠올리고, 비로봉에 오르는 것을 그러한 공자의 체험에 빗대고 있다.

03 [B]는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등을 통해 자연물인 '최고봉'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기〉는 '노흔 고래', '은산을 것거 내여 육합의 느리는 듯', '오월 장천의 백설' 등을 통해 망양정에서 바라본 물결과 파도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A]에서 '은하수'는 은하를 강에 비유한 말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은하수'는 폭포를 빗댄 표현이므로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자연물인 물결과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B]와 〈보기〉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과는 관련이 없다. ⑤ [A]와 [B]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으나, 〈보기〉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4 〈보기〉에 따르면 와유는 그림이나 글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간접 유람에 해당하고, 원유는 실제 여행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직접 유람에 해당한다. (가)의 '이적선이 이제 이셔 고텨 의논ᄒᆞ게 되면 / 여산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ᄒᆞ려니'를 통해, 화자가 여산을 직접 유람한 것이 아니라 이적선의 글을 통해 와유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는 '화룡쇠'를 직접 보고 느낀 감회를 서술하였으므로, (가)를 읽은 다른 이들에게 와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나)의 글쓴이는 2문단에서 직접 '백록담'과 주변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원유를 통해 자연의 형세를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4문단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최고봉'의 모습을 서술한 후, 5문단에서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글쓴이는 5문단에서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직접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10 ② 일동장유가 _ 김인겸

핵심 정리	
갈래	장편 가사, 기행 가사
화자	통신사로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
성격	사실적, 묘사적
주제	일본 방문 여정과 일본 문물에 대한 견문과 감상
특징	•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을 취함. • 대구법, 직유법, 과장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 일본의 자연환경, 문물, 풍경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현대어 풀이

부산항을 얼른 떠나서 오륙도를 뒤로 하고 / 고국을 돌아보니, 밤 경치가 아득하여 /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군영에서 (나오는) /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구나. / 선실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가득하니, / 만 석 곡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마치) 나뭇잎이 나부끼듯 /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 열두 발이나 되는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 쉰두 폭이나 되는 짚으로 엮은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 큰 우렛소리와 작은 벼락은 등 뒤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 성난 고래와 용이 물속에서 장난치듯 (물결과 파도가 더욱 심해지니,) / 선실의 요강과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며, / 사방에 있는 널빤지들은 (배가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저마다 삐걱대며 우는구나. / 이윽고 해가 돋거늘 굉장한 구경을 하여 보세. / 일어나 선실 문을 열고, 문의 기둥을 잡고 서서 / 사방을 바라보니, 아 굉장하구나! /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굉장한) 구경이 또 있을까? / 넓고 넓은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썹만큼이나 작게 보이고 /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어 /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중략〉 왜성으로 바로 가니, / "사람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 만은 못하여도 / 서에서 동까지 가기가 삼십 리라." 하는구나. / 관사는 본롱사요, 오 층 다락집 위에 / 열 개 남짓한 구리 기둥이 구름 낀 하늘까지 닿아 있구나. /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도 신기하고 기이하며, 대나무도 그윽한 정취가 있네. /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이라 매우 사치스럽구나. / 산 모양이 웅장하고, 물길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 / 끝없이 넓고 기름진 들판이 펼쳐져 있으니, (우리 민족이 아닌 왜가 가진 것이) 아깝고 애달프구나. / 이렇게 좋은 천연의 요충지가 일본 놈들의 소유가 되어 / 스스로 감히 황제라 칭하고 군왕이라 칭하며, (좋은 자연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니, / 개와 돼지 같은 이 더러운 무리를 모두 다 없애 버리고, / (일본의) 사천 리 육십 개의 주를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 왕의 교화로 씻어 내어 예의를 아는 나라로 만들고 싶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25쪽

1 ② 2 ② 3 ①

1 계절적 배경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고국을∨돌아보니,∨아색이∨창망하여'와 같이 3(4)·4조, 4음보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풍랑이 이는 모습을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성난 고래 동한 용' 등으로, 풍랑 속에서의

배의 움직임을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등으로 비유하여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④ 해구를 떠나 먼 바다로 나가 밤중에 풍랑을 겪고 〈중략〉 이후 왜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 따른 시·공간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⑤ 험한 파도에 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움직임을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와 같이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2 화자가 일본인들을 '왜놈'이라고 지칭한 것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일본 문화를 폄하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일본의 자연이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취 있'다며 감탄하고 있을 뿐,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일본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군왕이라 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조선도 황제의 칭호를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개돝 같은 비린 유'는 조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비유한 표현이다. ⑤ '예의국'은 일본을 표현한 말이 아니다. 화자는 일본인들이 예의를 모르는 민족이라고 여겨 그들을 조선처럼 예의를 아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에서 이 글은 작가가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가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륙도 뒤 지우고 / 고국을 돌아보니'에서 조선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는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은 큰 폭풍으로 인해 바람에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③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는 배가 풍랑 때문에 높이 솟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보고 들은 바를 사실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는 아침에 잔잔해진 수평선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⑤ '아깝고 애닯을손'에는 우리 민족이 아닌 일본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따라서 대상의 부정적 면모가 아니라 긍정적 면모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사회·역사적 배경

임진왜란 도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의 실권을 잡게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적극적으로 조선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다. 이에 1607년 조선에서 파견된 사절단인 조선 통신사는, 평화 유지의 수단으로서 문화 사절단의 역할이 강하였다. 이는 조선이 '무(武)'보다도 '문(文)'을 중하게 여기는 나라임을 알리고, '문(文)'의 힘을 일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26~127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가 한바탕 울 만한 자리 _ 박지원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기행 수필
성격	교훈적, 비유적, 체험적
제재	요동 벌판
주제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특징	•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 문답의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01 (나)의 화자는 일본인을 '왜놈'이라며 낮잡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넓은 터를 본 글쓴이가 한바탕 울 만한 자리라는 주관적 감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는 해돋이가 장관이라고 여기는 등 화자의 주관적 감상이 드러나 있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삼류하'를 지나 '냉정'으로 이동하였다. (나)에서는 대마도에 가까운 바다에서 '좌수포'로 들어가는 등 화자가 이동한 경로가 나타나 있다. ③ (가)는 글쓴이가 아침밥을 먹고 난 후 말을 타고 넓은 터로 나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나) 역시 화자가 선실에 있다가 나와 포구로 들어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④ (가)의 글쓴이는 '정 진사'와 대화하면서 그를 깨우쳐 주고 있다.

02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는 풍랑이 일어 험한 파도가 치는 것을 비유한 표현으로, 고래와 용이라는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위태로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태산'이라는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가상 상황이 악화되어 물결이 요동치며 솟구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 큰 배를 이리저리 나부끼는 '나뭇잎'에 빗댄 것은,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는 배가 파도로 인해 높이 솟구쳤다가(상승) 아래로 떨어지는(하강)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가 목전에 닥친 긴장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전승산과 화자가 필담을 나누고 전승산이 화자에게 은자를 주는 등 화자와 전승산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

03 ㉠은 밤중에 몰아친 풍랑이 그치고 해가 뜨자 화자가 선실에서 나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회를 드러낸 것이다. 즉, ㉠에는 바다에서 맞이하는 해돋이 풍광에 대한 감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은 일본의 문인인 전승산이 화자의 글솜씨를 평가한 것으로, 화자의 글 짓는 능력에 대한 감탄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② ㉠은 화자가 구경하는 해돋이 광경에 대한 감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또한 화자의 글솜씨에 대한 감탄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므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은 화자의 글솜씨라는 창조력에 대한 타인(전승산)의 평가를 담고 있다. ⑤ ㉠은 해돋이 풍광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탄이 담겨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은 화자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이 담겨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전승산은 화자가 글 쓰는 것을 보고, 유명한 퇴석 선생이 바로 화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화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반면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다. 즉,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각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전승산은 화자가 글 쓰는 것을 보고 화자의 정체(퇴석 선생)를 알게 되어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누기 시작하므로, [A]는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B]에서 전승산은 화자('나')의 글을 '빠른 재주'라면서 높이 평가하고, [C]에서 화자는 자신의 글을 '닭고 병든 둔한 글'이라면서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③ [B]에서 전승산은 '필담으로 써서 뵈'어 화자가 '퇴석'인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C]에서 화자는 '웃고 써서 뵈'어 자신의 글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답하고 있다. 따라서 문답의 형식을 통해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D]에서 전승산은 화자의 훌륭한 글을 본 것에 대해 '장한 구경'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E]에서 화자는 전승산이 글 값으로 준 은화에 대해 '도로 주'며 거절하고 있다.

11 ① 고공답주인가 _ 이원익

핵심 정리	
갈래	경계 가사
화자	종과 상전에게 훈계하는 어른 종
성격	우의적, 비판적, 교훈적, 경세적
주제	기울어진 집안 살림(나라)을 일으키는 방법 / 게으른 관리에 대한 비판과 임금이 해야 할 도리
특징	• 임금을 '마누라', 관리를 '종'에 비유하여, 임금과 관리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국가 기강의 확립을 도모함.

현대어 풀이

아아,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 (좀) 들어 보오. / 어찌하여 젊은 손님이 생각 없이 다니는 것인가? / 마누라의 말씀을 들어 보지 못했는가? / 나는 이럴지언정 외방의 늙은 종이 /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다네. / 우리 집 살림이 예로부터 이랬던가? / 농민이 많단 말이 한 나라에 소문이 났는데 / 먹고 입으며 고공살이 하는 종이 백여 사람이 넘는데도 / 무슨 일을 하느라고 텃밭을 묵혔는가? / 농장이 없는가? 호미 연장을 못 갖추었는가? / 날마다 무엇 하려 밥만 먹고 다니면서 / 열 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 아이들 탓이던가? / 우리 집 종의 버릇 보자 하니 괴이하구나. /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업신여겨 욕보이고 / 왕래하는 어리석은 손님이 양반을 실없는 말로 빗대어 희롱하는가? /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 다른 꾀로 자기 일만 하니 / 큰 집의 수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 것인가? / 곡식 창고가 비었거든 창고를 지키는 사람인들 어찌 하며 / 세간 살림이 흐트러지니 질그릇인들 어찌 할 것인가? / 자신의 잘못은 몰라도 남의 잘못을 모르겠는가? / 풀어헤치거니 맺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 하루 온종일 수선을 피우는 것인가? / 외별감이 많이 있어도 마름 대신에 세금을 받던 도달화도 / 제 소임을 다 버리고 몸만 사릴 뿐이로다. /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서 이며 / 옷을 벗고 (다)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 쌓을 것인가? / 불한당 같은 구멍 도적이 멀리 다니지 아니하거든 / 화살을 찬 상직군은 누가 힘써 할 것인가? / 크나크게 기울어진 집에 주인님(마누라) 혼자 앉아 / (하는) 분부를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와 할 것인가? / 낮과 밤의 많은 근심을 혼자 맡고 계시니 / 옥 같은 (고운)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 이 집이 이리 된 것을 누구의 탓이라 할 것인가? / 헤아림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 돌이켜 헤아려 보니 (모든 일이) 마누라 탓이로다. / 내 주인 잘못되었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다고 하겠지만 / 세상 사람들을 대하려니 민망하여 여쭈나이다. / 새끼 꼬는 일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 보소. / 집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잘) 휘어잡으시고 / 종들을 휘어잡으시려거든 상벌을 분명히 하시고 / 상벌을 분명히 하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집안의 도가 저절로 일어설 것입니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29쪽

1 ① 2 ④ 3 ①

1 ㉠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집안의 살림, 즉 나라의 상황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② ㉡의 종의 버릇이 이상하다는 것은 관리들의 잘못으로 국정이 파탄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은 나랏일에는 관심 없이 권력을 위해 당쟁만 일삼는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⑤ ㉤은 나라가 피폐해졌지만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2 화자는 '마누라(임금)'가 새끼를 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서둘러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는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에 이어지는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사릴 뿐이로다'로 볼 때 ⓐ는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가 비판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는 멀리 안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③ ⓒ(임금)에게 화자는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는 설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상전이 ⓔ를 밝히기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는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로 볼 수 있다.

3 임금이 충언을 듣고 관리들을 휘어잡으며 그들에게 내리는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함을 말하고 있을 뿐, 임금이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영의정('어른 종')의 입장에서 임금('주인님')에게 간언하고 있다. ③, ④ '새끼 꼬기 말으시고 ~ 집안의 도가 절노 일어서리라'에서 알 수 있다. ⑤ '불한당 구멍 도적', 즉 왜적의 위협이 계속되는데도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 꾀부려 제 일만 하'는 것에서,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30~131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⑤

가 곡목설 _ 장유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설(說)
성격	비유적, 현실 비판적
제재	굽은 나무
주제	곧지 못한 사람이 인재로 중용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특징	• 유추의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함. • 대화의 형식을 통해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줌.

나 고공가 _ 허전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성격	우의적, 교훈적, 경세적, 비판적
제재	어리석은 머슴의 행태
주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황폐함에도 사리사욕만 탐하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
특징	• 국가의 정치를 집안의 농사일에 빗대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신하를 비판함. • 임진왜란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01 (가)에서 장생은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들로 인해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자가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글쓴이('나')는 정직한 자보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더 높이 등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에서는 머슴들이, (다)에서는 종들과 주인('마노라')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세가 기울게 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에서는 머슴의, (다)에서는 종들과 주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다)에는 회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재산을 축적했던 내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③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이나 가치관의 대립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가세가 기울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다)는 세월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배경지식 >>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의 비교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는 모두 나라를 집안으로, 나랏일은 농사일로 빗대고 나라가 피폐한 원인을 신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고공가」와는 달리 「고공답주인가」는 신하의 태만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즉, 「고공답주인가」는 신하들이 근면해야 함과 왕 역시 신하의 충언(忠言)을 들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02 (다)의 화자는 가세가 기운 것에는 주인의 탓도 있으니 주인은 어른 종을 믿고 종들을 휘어잡아 다시 가세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화자가 (나)의 '자손'에게 자신의 발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장생이 굽은 나무를 보고 탄식한 내용에 대해 글쓴이가 반응하면서 둘의 대화가 전개되고 있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그려!"라며 장생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고공을 청자로 호명한 후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다)에는 (나)의 '새끼 꼬며 이르리라'와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에 각각 대응하는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와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다)가 (나)의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표지로, 이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03 [B]는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궂은지',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머슴들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듯'은 머슴들의 행동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를 통해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A]는 '할아버지', 즉 조상이 터를 닦아 집을 지어 내어 살림을 일으키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③ [C]는 '비가 새어 썩은 집'과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이며'와 '누가 고쳐 쌓을까'가 대응됨으로써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집과 담을 고칠 종이 없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D]는 '마노라'의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밤낮으로 '크게 기운 집'에 대한 걱정을 도맡고 있는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E]에는 연쇄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마노라'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종들 휘어잡기 – 상벌 밝히기 – 어른 종 믿기)를 밝히고 있다.

04 (다)에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어른 종'이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무너진 담'은 위험에 빠진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너진 담'이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② 화자는 '기운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종(관리)들과 주인(임금)에게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지만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워야 할 나라를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라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논의'는 국가의 대사를 위해 임금과 관리들이 합의하여 도출해 낸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논의'가 불필요한 당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철없는 종'은 조정의 일에 무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관리들을 가리킨다.

11 ② 만언사 _ 안조환

핵심 정리	
갈래	유배 가사, 장편 가사
화자	귀양살이하는 양반
성격	사실적, 애상적
주제	유배 생활의 고통
특징	• 과장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슬픔과 한탄을 표현함. • 대구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

현대어 풀이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 /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아무튼 (짐을) 져 보리라. / 갓은 숙여지지만 (몸에 입은) 홑중치막은 (거추장스러워) 어떻게 할까? / 주변머리 (좋은 것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할 것인가? / 넓은 소매는 구겨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 긴 언덕의 거리가 제법 되나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모두) 꿈이로다. /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 아무리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 멀지도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 높은 상전 집에 출입을 하는 것같이 등에서 땀이 나오네. / 저 주인의 거동을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 "양반도 참 할 일이 없네. 동냥질도 하시었으니 / 귀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나 보네. 등짐까지 지셨고 /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소." 〈중략〉 북쪽에 계신 부모님은 흰 머리가 늘었고 / 홀로 지내는 아내는 (또) 얼마나 늙었을까? / 다섯 살 때 헤어진 자식이 여섯 살 아이가 되었네. / 내가 아닌 임이라도 내 설움을 서럽다 하리? / 천 리 거리의 이별에 해가 바뀌도록 / 한 마디 글이 적힌 편지를 꿈에서나 들었으려나? / 구름 자욱한 산이 막힌 것처럼 큰 강과 바다가 가린 것처럼 / 창 앞에 기대어 피는 겨울 매화의 소식을 물어볼 방법이 전혀 없구나. / 바닷길로 천 리가 되는 곳이 멀기도 하거니와 / 삼천 리나 되는 약수에도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 구만 리나 되는 은하수에도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고 / 북해를 나는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가는데 / 내 소식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막혀 있는가? / 꿈에서나 혼이 가서 고향에 갈 수 있겠지만 / 원수 같은 잠이 와야 꿈인들 꾸지 않겠는가? / 눈물이 흐르고 한숨만 나오는구나. / 눈물도 한계가 있고 한숨도 끝이 있어야 하건만 / 내 눈물이 (다)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을 것이고 / 이 한숨이 (다)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을 것이니 / 바닷가에서 해가 저물고 마을에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날 때까지 (고향 생각을 하고 있자니) / 사공은 어디로 가고 빈 배만 매어 있는가?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33쪽

1 ④ 2 ③ 3 ③

1 화자는 현실을 꿈이라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을 비웃는 사람은 화자가 아닌 '저 주인'이다. 화자는 자신을 비웃는 '저 주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서러운 현실에

슬픔을 느끼고 이를 한탄할 뿐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유배 중인 자신의 현실을 부당하게 여기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지도 않다. ⑤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다.

2 '한출첨배'는 땀이 나서 등을 적신다는 뜻으로, 유배 중인 화자가 주인집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보기 2〉의 화자가 '공명'을 잊었다거나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동냥'은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2〉에서 '손님'의 '설운 말씀'의 내용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등짐'을 지는 화자의 행위는 유배지에서 겪는 〈보기 2〉의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쌍친'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는 결국 〈보기 2〉의 '천은'이라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유배지에서 벗어나 현실에 복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⑤ 이 글의 화자는 〈보기 2〉의 청자이자 '손님'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향에 가고자 하는 이 글의 화자의 바람은, 〈보기 2〉의 청자인 '손님'의 소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만언사」의 연작 구성적 특징

이 작품은 「만언사」라는 주 가사(主歌詞)에 「만언사답(萬言詞答)」, 「사부모(思父母)」, 「사백부(思伯父)」, 「사처(思妻)」, 「사자(思子)」, 후기 등이 붙어 있다. 「만언사」는 유배 생활의 고통스러움과 이에 대한 한탄,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 등을 다루고 있다. 「만언사답」은 유배지의 주민이 「만언사」의 화자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며, 「사부모」, 「사백부」, 「사처」, 「사자」는 각각 부모, 백부, 아내, 자식 등에 대한 심정을 담고 있다. 후기는 유배지의 한 백성이 화자가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간난신고'는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이라는 뜻으로, 유배 중인 화자의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와신상담'은 '불편한 섶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화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귀양을 온 상황이므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며,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견디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로, 화자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④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로, 화자가 주변을 대충 보면서 지나가는 상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다기망양'은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또는 '방침이 많아서 도리어 갈 바를 모름.'이라는 뜻이다. 화자가 성취를 하지 못하거나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34~135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⑤

나 견회요 _ 윤선도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연군적, 우국적
제재	유배지에서의 정회(情懷)
주제	유배지에서의 정회와 연군 /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특징	•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대구법, 반복법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01 (나)의 〈제3수〉에서 '임'은 임금을 의미한다. 이는 주야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임금을 향한 자신의 뜻(충정)이 그치지(변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제5수〉의 종장에서 임금을 잊으면 불효라고 한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정을 효와 관련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화자는 유배지에서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빨지 못해 땀이 배고 냄새 나는 누비바지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④ (가)에서 (다)의 작가가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의 화자가 농사에 힘쓰지 않고 공명을 탐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는 화자 자신을 꽃(공명)을 탐하는 벌과 나비인 '탐화봉접'에 비유하고, 자신이 개인적 잘못(비리)을 저질러 유배된 것을 '그물에 걸'린 것에 비유한 것이다.

02 '어와', '황금빛이로다'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앞산과 뒷산이 모두 황금빛으로 물든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보리가 화자 자신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그로 인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시냇물이 울면서 간다는 것은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② '많고 많고', '하고 하고'와 같이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옥식 진찬'과 '맥반 염장'이라는 대조적 시어를 통해 현재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한숨 끝에 눈물'과 '눈물 끝에 한숨'이라는 대구를 사용하여 유배 중인 자신의 한스러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03 ⓐ는 유배를 온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다.

오답 해설 ② ⓑ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다. ③ ⓒ는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게 된 계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는 '옷이 해어져서 백 군데나 기웠다는 뜻으로, 누덕누덕 기워 짧아진 옷을 이르는 말'로, 유배 중인 화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로 볼 수는 없다. ⑤ ⓔ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04 (다)에서 화자는 공명을 탐하고 농사에 힘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한 것이지, 공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에서 유배 가사는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날 경우 벼슬길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의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을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인 '탐화봉접'에 빗댄 것은, 자신이 유혹에 약해 죄를 지은 것은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더러운 옷을 입고 동냥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중분히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유배 중인 자신의 처지에 한숨과 눈물을 짓다가 이 상황이 어이없고 믿기지 않아 웃음이 나는 스스로의 모습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은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죄를 지은 것이 자신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2 ① 제가야산독서당 _ 최치원

핵심 정리	
갈래	한시(칠언 절구)
화자	속세와 떨어져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람
성격	서정적, 상징적
주제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특징	•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현대어 풀이

(냇물이) 여러 겹의 바위 사이를 세차게 흘러 (물소리가) 몇 겹의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들의) 말소리가 가까이에서도 들리지 않는구나.
늘 (사람들끼리) 옳으니 그르니 다투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39쪽

1 ③ 2 ① 3 ⑤

1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의 부정적 성격으로 볼 때 당시의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소리인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인 '흐르는 물(소리)'을 대조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단절'이라는 물의 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④ '기(1구)–승(2구)–전(3구)–결(4구)'에 따라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화자가 물로 산을 둘러 버렸다고 표현하는 주관적 변용을 활용하여 속세와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리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산골을 흐르는 냇물이다.

오답 해설 ② 인간의 소리인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흐르는 물'과 반대로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③ 3구의 '공'을 통해 사람들의 시비 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화자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④ 4구에서는 물소리를 이용하여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⑤ 자연의 소리('흐르는 물')와 인간의 소리('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를 대조하여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 ㉠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자를 속세와 단절시키는 소재에 해당한다. 〈보기〉의 ⓔ 역시 세상을 가리는 '머흔 구름'과 함께 '딘훤(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 주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③ ⓐ~ⓒ는 가을 풍경 속의 자연물에 해당한다. ④ ⓓ는 속세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소재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40~141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③

나 부벽루 _ 이색

핵심 정리	
갈래	한시(오언 율시)
성격	회고적, 애상적
제재	부벽루 주변의 풍경과 감상
주제	지난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국운 회복에의 소망
특징	• 변함없는 자연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대조함. •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 앞부분에서는 풍경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을 활용함.

다 어부가 _ 이현보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풍류적, 자연 친화적
제재	어부의 생활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정(閑情)
특징	• 화자를 어부로 설정하여 어부 생활의 흥취를 표현함. •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01 (가)의 화자는 물소리로 속세의 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속세를 잊으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속세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할 뿐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도 인간 역사의 유한성과 그로 인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며 한탄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화자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의 화자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다)의 '한운', '백구'는 자연 친화적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화자가 자연물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가)와 (나)의 화자 역시 자연물을 본받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⑤ (가)~(다) 모두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배경지식 >> 「제가야산독서당」의 대조법
이 작품의 1구와 4구에서는 자연의 물소리를, 2구와 3구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비(是非)하는 소리를 제시하여 자연 속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 이는 시비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02 '임천한흥'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라는 뜻으로, 〈보기〉의 화자는 현재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어느 곳에서 살든 홍겨운 일만을 취할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가)와 (다)의 화자는 모두 속세와 거리를 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보기〉의 화자에게 두 화자가 했을 법한 말로 적절하다.

03 '봉우리 울리니'의 주체는 물소리로, 산골을 울리는 냇물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물소리는 화자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봉우리 울리니'에 경세의 뜻을 펼쳐 이름을 날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혼란스러운 세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기〉에서 최치원은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

리'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세상을 난세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귀에 들릴세라'는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 두렵다는 뜻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개혁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린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04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가)의 화자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산'이라는 공간이, 〈보기〉에는 눈이 내려 길이 모두 묻힌 '산촌'이라는 단절된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가)의 '흐르는 물'은 화자를 세상과 단절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기〉의 시어는 '시비'이다. ③ (가)의 4구에서 물이 산 주위를 흐르는 것을, 화자가 물로 산을 둘러 버렸다고 한 것은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⑤ 〈보기〉의 중장에 '날 찾을 이 뉘 이시리'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05 ㉠은 '늘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속세를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속세와의 단절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다. ② ㉠은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달리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④ 화자가 속세와 단절되는 것을 화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을 통해 화자가 속세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화자와 속세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기능,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자연 공간의 요소로서의 기능 등을 한다.

12 ② 보리타작 _ 정약용

핵심 정리	
갈래	한시, 행(行)
화자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성격	사실적, 묘사적, 성찰적, 예찬적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특징	• 농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활용함. •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상을 전개함. •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냄.

현대어 풀이

새로 걸러낸 막걸리는 젖빛처럼 뿌연 색을 띠고 있고 / 큰 사발에 담긴 보리밥은 높이가 한 자가 (될 만큼 높게 쌓여) 있구나. /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도리깨를 잡고 마당으로 나가니 / (햇볕에) 검게 탄 두 어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빛나는구나. / '옹헤야' 소리를 내며 (다 같이) 발맞추어 (보리를) 두드리니 / 삽시간에 보리 낟알이 온 사방으로 가득 퍼지네. / 주고받는 노랫가락은 점점 높아지는데 /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날아가는 보리 티끌이로구나. / 보리를 타작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음을 알겠구나. / (이렇듯 건강하고 즐거운) 낙원과 같은 삶이 먼 곳에 있지 않은데 / 무엇 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매고 다녔는지 (반성이 되는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43쪽

1 ④ 2 ⑤ 3 ②

1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는 고된 노동 중에도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노동에 임하는 농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평가로,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몸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막걸리'와 '보리밥'은 소박한 음식으로, 농민들의 평범한 생활상을 드러낸다. ② '도리깨'는 곡식의 낟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이고, '마당'은 보리타작이 행해지는 노동의 공간이다. ③ '노랫가락'은 노동요로, 노동요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높아짐을 통해 노동의 강도가 점점 세짐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화자는 '벼슬길'을 헤맸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면서 '헤매리오'와 같이 설의법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2 [A]~[D]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벼슬길을 헤맸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성찰하고 있다. 즉,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농민들이 '막걸리'와 '보리밥'을 먹은 후 '도리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서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는데, '햇볕 받아 번쩍이'는 '검게 탄 두 어깨'를 통해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B]는 농민들이 '옹헤야 소리'에 맞춰 발을 맞추면서 협력하여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③ [C]에서 화자는 [A], [B]에서 관찰한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는 정신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A]~[C]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벼슬길'이라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진술하고 있다.

3 이 글은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이 글에서 화자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 화자는 농민을 괴롭히는 관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농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 당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은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등의, 〈보기〉는 '호박, 사립문, 수박' 등의 일상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배경지식 ›› 정약용 한시의 특징

정약용의 한시는 당대 사회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부패한 관리나 토호들의 횡포를 고발하였으며,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참된 삶의 모습을 예찬하였다. 이는 사회의 많은 현상에 관심을 갖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시 정신을 보여 준다. 또한 정약용은 「조선시 선언」에서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중국 시격과 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비록 중국의 문자를 빌려 중국 문학의 형식인 한시를 썼지만 민족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정약용 시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비록 한자이지만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나 향토적 어휘를 사용하여 당대 사람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44~145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6 ①

가 율리유곡 _ 김광욱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전원적, 탈속적
제재	자연과 벗하는 생활
주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특징	•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하여 소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 대구, 반복, 설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01 (가)는 '남이 아니 잊으랴', '강산과 바꿀쏘냐',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이토록 시원하랴' 등에서, (나)는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각각 자연('강산')과 농민들이라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으나,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④ (가)와 (나) 모두 연쇄법이나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는 '젖빛처럼 뿌옇고'에 직유법이 나타나지만, (가)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02 (나)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노동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농민들은 육체와 정신이 통일되어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농민들의 건강하고 생동하는 삶을 통해 벼슬길을 헤매고 다니는 자신, 즉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ㄴ은 (나)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ㄱ: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와 관련된다. ③ ㄷ: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를 통해 농민들이 노동요를 부르며 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부르는 노동요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ㄹ: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해설자를 통해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ㅁ: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와 관련된다.

03 ㉢의 '검게 탄 두 어깨'는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어깨를 묘사한 것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의 모습을 뜻한다. 따라서 고된 삶을 살아왔던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공명'과 '부귀'는 세속적 가치로, 이를 잊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린 것에 해당한다. ② '헛글고 싯근 문서'는 화자를 옭아매던 관직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매인 새'가 놓인 것과 비교하여 표출하고 있다. ④ ㉣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한 것이다. ⑤ 벼슬길이라는 세속적 욕망을 좇던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04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에서 화자는 벼슬길을 헤매고 다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농민들의 모습을 이상적 상황으로 여기며 이를 추구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시적 대상인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삼고 있다. ③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화자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있으나 화자가 시련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다.

05 (나)의 '벼슬길'과 〈보기〉의 '녀나믄 일'은 모두 세속적인 관심사를 뜻하는 것으로, 화자가 지양하는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보리밥'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농사일에 몰두하는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다. 또한 〈보기〉의 '보리밥'은 소박한 삶과,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② (나)의 '마당'은 삶의 터전으로 제시된 노동의 공간이고, 〈보기〉의 '물가'는 유유자적하며 여유 있게 즐기는 풍류의 공간이다. ③ (나)의 '노랫가락'은 농민들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한가롭고 여유 있게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헤매고 있겠는가'와 〈보기〉의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06 ⓐ는 화자가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다. ⓑ는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는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담긴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는 빈곤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에서 화자가 궁핍한 처지에 있다거나 그로 인한 좌절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에서 삶의 애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④ ⓐ에 힘겨운 상황이나 저항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⑤ ⓐ에 자기 절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에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출되어 있지도 않다.

12 ③ 시집살이요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민요
화자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여성과 사촌 동생
성격	해학적, 풍자적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특징	• 비유, 대조, 열거, 과장, 언어유희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사상을 전개함. •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현대어 풀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요? / 애, 말도 마라. 시집살이는 개집살이(처럼 힘들단다.) /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 고추 당추가 맵다고 해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 수박처럼 둥글게 생긴 밥그릇은 밥 담기도 어렵더라. / 어린아이가 도리질하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소반에는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와 십 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방아를 찧어서는 / 아홉 개의 솥에 불을 때고 열두 개의 방에 이부자리 걷고 / 외나무다리가 (건너기) 어렵다 한들 시아버지같이 어려울까? / 나뭇잎이 푸르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서슬)보다 더 푸를까? / 시아버지는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요, 시어머니는 꾸중을 잘하시는 분이요, / 동서는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이요, 시누는 모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요, / 시아주버니는 통명스럽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남편은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요, / 자식은 계속 울고 보채는데, 나 하나만 고생해서 썩고 있네. / 못 들은 척 참고 삼 년 살고, 못 본 척 참고 삼 년 살고, / 할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삼 년 살고, 그렇게 아홉 해를 참고 살고 나니, / 배꽃처럼 곱던 얼굴이 호박꽃처럼 늙었네. / 윤기 나던 내 머리카락이 싸리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네. / 백옥처럼 희고 곱던 내 손길이 오리발처럼 거칠게 텄네. / 고운 무명에 남색 물을 들인 치마 눈물 씻다 다 젖었네. / 두 폭을 붙인 행주치마 콧물 닦다 다 젖었네. / 울었는지 말았는지 (너무 많이 울어) 베갯머리가 연못이 다 되었네. / 그것도 연못이랍시고 자식들이 찾아들어 / 어미 품으로 파고들어 오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47쪽

1 ④ 2 ① 3 ④

1 사촌 형님은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해학적,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집살이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웃음으로 극복하며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③ 사촌 동생은 친정에 온 사촌 형님을 마중 나가 만난 후 시집살이에 대해 묻고 있으며, 사촌 형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며 시집살이의 여러 가지 고충을 비유적, 과장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 쌍쌍이 때 들어오네'를 통해, 고된 시집살이 중 자신에게 파고드는 자식들을 보며 위안을 얻고 시집살이의 고통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사촌 형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 뒤에 이어지는 '시집살이 개집살이'가 사촌 형님의 답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오 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긷고, 십 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방아를 찧는 등의 힘든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여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시집 식구들 하나하나의 성격이나 특징을 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추측할 수 있다. ④ ㉣의 '귀먹어서', '눈 어두워', '말 못 해서'라는 표현을 통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아도 못 본 척하며,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며느리의 어려운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⑤ ㉤은 결혼 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배꽃', '삼단', '백옥'에 비유하고, 결혼 후에 초라해진 모습을 '호박꽃', '비사리춤', '오리발'에 비유함으로써 시집살이의 고충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에서 「시집살이요」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솔직하고 대담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화자의 생각을 시원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③ 〈보기〉에서 양반 여성과 평민 여성 모두 조선 후기의 가부장제하에서 살아가면서 시집살이라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이러한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기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통로로 규방 가사와 「시집살이요」를 향유했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보기〉에서 「시집살이요」의 화자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솔직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48~149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③

가 고시 8 _ 정약용

핵심 정리	
갈래	한시(오언 고시)
성격	우의적, 풍자적, 상징적, 비판적
제재	백성들의 삶
주제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
특징	• 제비를 의인화하여 우의적 수법으로 세태를 풍자함. • 화자와 제비의 대화 형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01 (가)는 화자와 제비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비가 황새와 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사촌 동생과 사촌 형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모두 반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배경지식 >> 「고시 8」에 드러난 현실 인식

이 작품은 지배층에게 착취당해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비,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층을 상징하는 황새와 뱀을 통해, 지배층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풍자하고 있다.

02 그치지 않는 제비의 울음소리로 백성들의 고통을 표현하였으나, 현실에 굴하지 않는 백성들의 꿋꿋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황새'와 '뱀'이 '제비'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당대 현실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황새'와 '뱀'은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을, '제비'는 착취당하는 피지배층을 상징한다. ③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삶의 터전마저 빼앗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지배층의 고난을 엿볼 수 있다. ⑤ 작가는 착취당하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사촌 동생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촌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가사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감탄이나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④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04 ㉣의 '거위'와 '오리'는 힘들어하는 화자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들을 빗댄 표현으로, 화자는 이러한 자식들을 보며 부정적인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고추', '당추'와 비교하여 그 고통의 정도를 '더 맵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시집살이의 가사 노동이 과중함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는 무섭고 엄격한 시아버지를 '호랑새'에, 꾸중을 잘하는 시어머니를 '꾸중새'에 빗대어 그들이 며느리로서 대하기 힘든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에서 '배꽃'은 시집오기 전의 자신의 모습을, '호박꽃'은 시집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초라해진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05 [A]는 사촌 형님이 사촌 동생을 만나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 임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를 통해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알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형님 온다'의 반복, '형님 형님', '이애 이애' 등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기〉는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에는 시집살이의 어려움만 제시되어 있을 뿐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기〉는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에서와 같이 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 상황을 자신에게서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A]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에도 우연히 만난 두 여인이 말을 주고받고 있을 뿐 그 공간이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 반어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으며, 〈보기〉는 임이 계신 곳을 '천상 백옥경'에 비유하고 있을 뿐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2 ④ 유산가 _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잡가
화자	봄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
성격	서정적, 향락적, 유흥적
주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완상과 흥취
특징	•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함. •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대구법, 열거법, 비유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됨. • 우리말 표현과 한자어가 혼용되어 쓰임.

현대어 풀이

봄이 오자 성안에 꽃이 만발하여 화려하고, 따뜻한 봄날에 만물은 바야흐로 한창 기를 펴고 자라난다. / 때가 좋구나. 벗님들아, 산과 강의 경치를 구경하러 가자꾸나. /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표주박 하나를 들고 천 리 강산에 들어가니 / 온 산에 가득한 붉은 꽃과 푸른 초목은 일 년에 한 번마다 다시 피어 / 봄 색깔을 자랑하느라고 가지각색으로 붉었는데, /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이 화려한 가운데 /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자취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구나. / 버드나무 위에 나는 꾀꼬리는 여러 개의 금 조각 같고 꽃 사이 춤추는 나비들은 날리는 눈송이 같구나. / 아름다운 봄 석 달이 (참으로) 좋으니 복숭아꽃은 활짝 피어 점점이 붉었구나. / 고깃배를 타고 물을 따라 올라가서 산속의 봄 경치를 사랑하게 되니,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 버드나무의 가는 가지는 수많은 실을 늘여 놓은 것같이 가닥가닥이 푸른데, 황산의 골짜기에 봄을 맞으니 도연명이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곳이 여기가 아니냐? / 제비는 물을 차며 (날아오고)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가는데) / 허공에 높이 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 /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 천 리 강산 머나먼 길을 / 어찌 갈까 슬프게 운다. / 먼 산은 겹겹으로 펼쳐지고 높은 산은 우뚝 솟아 있으며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이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치렁치렁 늘어져 / 허리가 구부러진 채 미친 듯 사나운 바람에 흥이 겨워 / 우쭐 활활 춤을 추는 것 같다. / 층층인 바위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쏟아져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드리운 것 같고, / 이 골짜기의 물이 주루룩 저 골짜기의 물이 솰솰 /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한곳에 모여 / 하늘로 땅으로 솟구쳤다가는 내려앉아 편편하게 흐르며 / 넝쿨과 같은 긴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고 물방울을 이루기도 하며, 저 건너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로 / 으르렁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결이 은과 옥같이 흩어지니, / 소부와 허유가 서로 말을 주고받던 기산의 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 주걱주걱 우는 새는 변함없는 절개의 상징이요, 소쩍새 울음소리는 한 해의 풍년을 알리는구나. /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지는 해가 눈앞에 펼쳐지니 경치가 한없이 좋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51쪽

1 ④ 2 ② 3 ④

1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시선이 '봄 산 → 기러기가 날아가는 하늘 → 폭포'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간에 원경에서 근경으로('원산 첩첩 ~ 장송은 낙락')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② '원산 첩첩 태산 주줌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등과 같이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③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수정렴 드리운 듯'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폭포의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진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⑤ '펄펄', '첩첩', '증증', '우쭐', '콸콸', '주루룩' 등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2 '죽장망혜 단표자'는 소박한 차림새를 의미하고, '천리강산 들어'간다는 것은 봄 경치를 구경하러 산(자연)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벗님네'에게 '산천경개'를 '구경 가'자며 권유하고 있는데, '산천경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한다. ③ '만산홍록'은 온 산에 붉은 꽃이 활짝 피고 푸른 초목이 무성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준색'으로 제시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④ '어이 갈꼬' 하면서 '슬피' 우는 것은 기러기의 정서로, 봄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운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⑤ '으르렁 콸콸'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폭포의 물결이 역동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3 이 글은 봄을 맞이한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느끼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바위 끝 물가(자연)에서 한가롭고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자연은 유흥의 대상으로 묘사될 뿐, 화자는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지는 않는다. ② 〈보기〉에는 계절과 관련된 시어나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이 글에는 계절이 봄임을 알게 하는 시어가 나오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유흥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지 않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52~153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②

가 강설 _ 유종원

핵심 정리	
갈래	한시(오언 절구)
성격	관조적, 은일적, 회화적
제재	눈 내린 강의 풍경
주제	눈 내린 대자연 속에서 홀로 고기를 낚는 어옹의 고적한 모습
특징	• 눈 내린 뒤의 강산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 냄. • 넓은 대자연과 대비된 노인의 외로운 모습이 부각됨.

나 고산구곡가 _ 이이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교훈적, 예찬적, 풍류적
제재	고산의 아름다움 예찬과 학문의 즐거움
주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
특징	•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함.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하루의 시간적 순환과 한 해의 질서를 드러냄.

01 (가)에서 화자는 눈 내리는 강에서 낚시하는 늙은이의 모습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비해 (다)의 화자는 봄을 맞은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다)가 (가)에 비해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가 '평무', '송간', '녹준' 등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는 '펄펄펄', '콸콸', '주루루룩' 등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③ (나)는 '일곡은 어드매오'라고 물은 뒤 '관암에 해 비친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문자답의 방식은 '이곡', '삼곡'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에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눈이 내리는 겨울, (다)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나타나지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는 '준만커다'에서 봄이라는 계절이 나타나고, '여름 경이 없어라'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나타나므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⑤ (나)와 (다)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반면, (가)의 화자는 눈 내리는 강의 모습을 관찰하며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나), (다)에 비해 (가)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고산구곡가」의 배경

이 작품의 배경은 황해도 해주 고산의 석담 계곡이다. 이이는 이곳에 정사를 짓고 은거하며 각 장소마다 이름을 붙였다. 서곡 1수와 본문 9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석담 계곡 아홉 굽이가 지닌 아름다운 풍경과 그에 따른 감회를 읊고 있다.

02 (다)는 봄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어 이를 통해 화자의 낙천적인 태도와 유흥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기러기'가 '어이 갈꼬 슬피' 우는 것에서 비애의 정서를 엿볼 수는 있지만 이는 화자의 정서라 보기 어렵다. '어이 갈꼬 슬피 운다'는 봄이 되어 기러기가 돌아감을 의미하는 상투적 표현으로, (다)의 전체적 내용과는 이질적인 정서이다.

오답 해설 ② '이 골 물이 주루루룩 ~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에서 3·4조의 율격이 파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원산은 첩첩 ~ 장송은 낙락'에서는 먼 산이 겹겹으로 펼쳐진 모습(원경)에서 큰 소나무의 가지가 늘어져 있는 모습(근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④ 앞부분에서는 봄 산의 전체적인 정경을 묘사하고 있으나 뒷부분에서는 '폭포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앞부분에 비해 뒷부분에서는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시각적·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 산민육가 _ 이홍유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제재	자연 속에서의 삶
주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
특징	•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냄. • 자연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함.

03 (나)는 '유상 앵비는 ~ 분분설이라'와 같은 은유법과, '수정렴 드리운 듯'과 같은 직유법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콸콸, 주루루룩, 쏼쏼' 등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으나, (가)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제5수〉에서 속세에 있던 과거와 산림에 묻혀 사는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③ (가)는 '몸', '세상' 등의 시어를 반복하고 있으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⑤ (나)는 유흥적이고 향락적인 어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4 '꽃 속에 잠든 나비'는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나)의 자연은 유흥의 공간이지,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구경을 가세'라는 청유형 표현을 통해, 전문 가객이 청중들로 하여금 화자와 함께 자연의 풍광을 느끼도록 대리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수정렴 드리운 듯'은 폭포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수정렴'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비유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기산 영수'는 이상향을 의미하므로, 기산 영수가 이곳(자연)이라는 것은 화자가 자연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경개 무궁 좋을씨고'는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감각적인 흥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